

조선시대 활용화의 방안

2024. 11. 21.(목) 14:00 - 17: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김남주홀



목 차

개회식:

개회사 / 축사 및 환영사

6p

발표1:

조선시대 문과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

송만오(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10p

발표2:

朝鮮 科試 資料의 存在 樣相과 그 分類 試論

김광년(KAIST)

30p

발표3: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시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이효종(국립진주박물관)

56p

토론문:

토론1: "조선시대 문과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한 토론문

박종훈(조선대)

68p

토론2: "朝鮮 科試 資料의 存在 樣相과 그 分類 試論"에 대한 토론문

권경순(한국고전번역원)

72p

토론3: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시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문

박은빈(전남대)

78p



활용화자료의 조선시대 탐색방안과 시권

2024. 11. 21.(목) 14:00 - 17: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김남주홀

순서 및 일시		내 용
개회 14:00 ~14:10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 (5') 이성원(인문대학장) (5')
주제발표 14:10 ~ 15:40 - 사회: 강동석	발표 1	조선시대 문과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 (30') 송만오(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발표 2	朝鮮 科試 資料의 存在 樣相과 그 分類 試論 (30') 김광년(KAIST)
	발표 3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시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30') 이효종(국립진주박물관)
휴식(20')		
종합토론 16:00 ~17:00	좌 장 토론자	류호석(전북대) 박종훈(조선대), 권경순(한국고전번역원), 박은빈(전남대)

인사말



충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11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제법 싸늘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개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인 조선시대 시권(試券)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과거제도가 시행된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시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시권 자료의 탐색과 활용화 방안]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게 된 까닭입니다.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에 산재한 조선시대 시권을 조사하여 2023년에 <조선의 시권>(2책)을 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올해에도 국역사업에 참여하신 송만호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 연구자 분들을 모시고 그 활용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시권 자료를 조사, 국역한 지 3년 만에 호남지역 시권의 전반적 특징과 활용 방안이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표를 맡아 주신 전북대의 송만오 교수님, KAIST의 김광년 교수님, 국립진주박물관의 이효종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하실 전북대 류호석 교수님을 비롯한 박종훈(조선대), 권경순(한국고전번역원), 박은빈(전남대)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시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환영사를 해주신 이성원 전남대 인문대학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진원은 호남지역 문집과 고문서 그리고 주요 문헌의 국역 성과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호남학 관련 자료의 검색뿐만 아니라 호남학TV 유튜브에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시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빛내주신 참석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및 환영사



이성원(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이성원입니다.

만주를 지나 초겨울의 문턱에서 학교는 학기말을 맞이하고 여러 학회와 기관도 한해의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는 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시권’을 주제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개최하는 오늘의 뜻깊은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남대학교를 찾아주신 홍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모든 분들을 성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답안지의 성격을 갖는 ‘시권’은 한국근세 역사의 지성사, 교육사, 학술사, 제도사 등 역사 연구 전반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갈수록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중심으로 그 발굴과 복원, 데이터베이스와 번역 작업을 진행한지도 근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벨의 과거시험에서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은 시제가 요구하는 최적의 답안을 작성해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책답(策答)을 비롯하여 시부(詩賦)와 표문(表文)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책문(策文)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외교, 행정을 비롯하여 심지어 천문, 역법, 음양의 도까지 그 야말로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해지는 시권의 생생한 자료들을 통해 경전과 제자백가, 정사와 문집, 그리고 법률과 제조(制詔)의 교양을 아우르는 조선시대 최고 사인들의 수준과 품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홍영기 원장님 및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옥고를 발표해주시는 송만오, 김광년, 이효종 교수님, 그리고 토론과 진행을 맡아주신 류호석, 박종훈, 권경순, 박은빈, 강동석 교수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학술대회의 성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조선시대 문과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

송만오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조선시대 문과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

송만오(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1. 머리말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시대의 문과 試券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시권이란 科場에서 응시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가리킨다. 시권은 조선의 여러 과거들, 즉 문과, 무과, 소과, 잡과에서 모두 생산되었는데, 본고는 그 중 특히 문과의 시권만을 주목할 것이다. 別科나 節日製¹⁾ 등 문과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여러 試才에서 생산된 시권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과의 시권은 크게 가로형 시권과 세로형 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로형 시권이란 가로가 세로보다 긴 시권을 가리키며, 세로형 시권은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긴 시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로형 시권은 옆쪽(왼쪽)으로 기다란 형태이고, 세로형 시권은 아래쪽으로 긴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가로형 시권은 어떤 문과에서 사용되었고, 세로형 시권은 어떤 문과에서 사용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세로형 시권과 가로형 시권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무엇이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자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그런데 문과 시권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법하다. 어떤 문과든 같은 형태의 시권을 쓰는 것이 문과를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나 혹은 문과에 응시하는 응시생의 입장에서나 편리하였을 것이요, 정부도 분명 그 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문과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었으며, 문과마다

1) 별과나 절일제 등은 문과가 아니다. 이들 시험에서는 급제가 아니라 가산점이나 직부회시 또는 직부전시의 자격만을 주었다. 별과나 절일제에서 받은 가산점은 나중에 다른 문과의 초시에 응시할 때 활용할 수 있었고, 직부전시 자격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문과의 최종 시험에 참여해야 했다. 그래야만 급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조 22년(1798) 광주목에서 치러진 光州別科가 별과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험에서는 高廷鳳과 任興源에게 직부전시의 자격이 주어졌는데 고정봉은 2년 후인 정조 24년(1800)에 치러진 경신별시에서 급제를 받는다. 하지만 임홍원은 모르겠다. 현재 그의 이름은 문과방목에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급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홍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위 광주별과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희태, 「1798년 광주목 과거시험 御考榜에 든 장흥 선비들」, 『장흥문화』38, 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운영방식이 달랐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문과의 실행 목적 이 다양하였다는 점과도 연결이 된다. 문과의 종류나 운영 방식 그리고 문과 실행의 목적 때문에 시권의 형태가 달랐던 것이다.

2.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문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의 문과는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시요, 다른 하나는 비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들을 가리킨다. 증광시와 별시,²⁾ 정시, 알성시, 외방별시 등이 바로 비정기적으로 실행되던 문과들이었다. 따라서 문과는 그 종류가 모두 6개였다고 말할 수 있다.³⁾

이들 문과 가운데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시험⁴⁾은 식년시와 증광시와 별시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에 치러졌던 외방별시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식년시는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문과였고, 증광시는 새로운 왕의 즉위와 같은 왕실에서의 큰 경사가 있을 때 개설하는 경과였고, 별시는 대부분이 증광시를 개설할 정도보다는 작은 규모의 경사가 있을 때 개설하는 경과였다.⁵⁾ 그리고 외방별시는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마련하는 문과였다.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였던 저들 문과의 공통점은, 최종 급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였다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몇 단계에 거쳐 그리고 단계마다 몇 번의 시험을 치른 후에 최종 급제자를 결정하였다.

2) 별시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통명사로서의 의미와 고유명사로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보통명사로서는 별시는 식년시를 제외한 모든 문과를 지칭하며,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를 거쳐 최종 급제자를 선발하는 형태의 문과를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후자의 의미로만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 비정기시 가운데 증광시와 별시 그리고 정시는 다시 또 小增狂詩와 大增廣試, 六百別試와 三百別試, 小庭試와 大庭試로 구분되었다. 대와 소의 다른은 선발 인원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었다. 대증광시가 소증광시보다는 대정시가 소정 시보다는 더 많은 급제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별시에서의 육백과 삼백은 각각 초시 선발 인원을 의미한다. 한편 고종 년간에 이르면 應製라고 불리는 시재가 문과가 운영되는 예가 세 차례 정도 있게 된다. 하지만 응제는 문과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4) 본고에서 사용되는 시험이나 과거하는 단어는 언제나 문과만을 지칭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만약 시험이나 과거라는 단어가 문과와 함께 개설된 무과나 생원진사시를 가리킬 때면 반드시 무과나 생원진사시라는 단어를 첨가하였다.

5) 조선시대에 실행된 증광시는 모두 67회였는데, 모두가 다 경과였다. 그리고 별시 역시도 대부분 경과였는데, 다만 별시 중 일부는 무과나 혹은 중시를 치르게 됨에 따라 개설되는 예도 있었다. 무과 때 문에 마련된 별시를 무과대거별시라고 하였으며, 중시 때문에 마련된 별시를 중시대거별시라고 불렸다.

예를 들어, 식년시와 증광시는 초시와 복시 그리고 전시라는 세 단계 과정이 있었고, 별시와 외방별시는 초시와 전시 등 두 번을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었다.⁶⁾

그런가하면, 식년시와 증광시의 초시와 복시는 다시 初場, 中場, 終場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 했으며,⁷⁾ 별시의 초시에서는 초장과 종장의 과정이 있었다.⁸⁾ 다만 외방별시 초시의 경우는, 아직 분명한 바는 아니지만 초장과 중장 혹은 종장 등의 구분이 없이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1차 합격자⁹⁾를 선발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초시는 반드시 서울과 외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외방의 문과 초시는 하나의 道에 두 개의 시험장, 전라도를 말한다면 전라좌도에 하나 전라우도에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 그러하였다는 의미이다. 실제로는 하나의 도에 하나의 시험장만 마련하는 예도 많았다. 한편 하나의 도에 두 개의 시험장을 설치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¹⁰⁾ 혹은 응시생과 시관과의 상피를 위해서였는데, 상피 때문에 시험장을 바꿔야 할 때는 三鄉, 즉 本鄉과, 外鄉, 그리고 妻鄉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6) 다만 외방별시는 사정이 좀 달랐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두 차례 시험을 통해 급제자를 선발하였지만,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한 차례의 시험만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바뀐 듯하다. 그러면서 운영 방식이 정시나 알성시처럼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에 치러지는 외방별시에서 사용된 시지는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7) 다만 증광시 복시의 경우, 중장이 생략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아예 치르지 않은 것이 일상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8) 『승정원일기』, 인조 8년(1630) 7월 13일을 보면 “禮曹啓曰，今此皇太子冊封別試，初場論賦具篇，終場策文一道，講經五中自願一經，四書中抽粧一書，取粗以上分三所，各取二百人，初試八月二十八日，講經九月十八日，殿試同月三十日，放榜十月初十日，啓。”라고 나온다.

9)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합격이나 급제라는 용어에 대해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문과 합격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은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반드시 급제라고 해야 맞다. 소과, 즉 생원진사시에 대해서는 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문과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격이 다른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과에서도 최종 급제자가 아니라 초시나 복시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격 혹은 입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10)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실력을 겨루는 일은 동방 예의지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시험의 초시에 응시 할 경우, 두 사람의 시소는 반드시 달리해야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초시에 합격하였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었다. 이제는 서울에서 치르는 복시에 참여해야 하는데, 복시 시장은 두 군데로 마련되었으므로 시험장을 달리한다면 서로 만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두 사람이 또 복시에 나란히 합격한다면 이제는 전시 시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야 한다는 곤란한 일을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전시 시장한 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초시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아들은 다음 번 시험의 복시에 응시도록 하였다. 그 절차를 陳試라고 하였다. 한편 정시와 알성시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치러지는 외방별시에서는 상피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위 세 시험에서는 부자동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별시의 초시는 조금 달랐다. 육백별시의 경우는 초시를 서울과 외방으로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서울에서만 치르는 때도 있었다. 반면 삼백별시의 초시 시장은 서울에만 마련하였다. 그리고 외방별시의 초시는 반드시 그 외방별시가 치러지는 지역 내, 평안별시를 예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평안도 내의 어느 특정 고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육백별시 초시 시장을 외방으로 확산하는 경우에는 마치 식년시와 증광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의 도에 두 개의 시소를 마련토록 하였다.

가로형 시권을 사용해야 하는 문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모든 시험에 易書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역서란 응시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붉은 색 글씨로 옮겨 적은 것을 말한다. 역서된 시험지를 朱草¹¹⁾라고 불렀는데, 채점은 바로 이 주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물론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처였다. 채점관들이 답안지에 쓰인 글씨체를 보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아예 조선초기부터 역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 역서제는 현종 1년(1834) 7월 75일에 폐지된다.¹²⁾

그런데 역서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전국에 마련된 식년시 초시의 초장과 중장 그리고 종장을 비롯하여 서울에서 치르는 복시에서 생산된 그 많은 답안지를 역서하는 일이 결코 간단치가 않았던 것이다. 비용도 비용이었고, 또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도 간단치 않았다. 시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자세한 바는 아니지만, 시험을 마치고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사이 내에 역서와 채점을 모두 마치고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성부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것도 또 식년시나 증광시 혹은 별시의 초시를 여유롭게 진행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식년시를 보면 초시는 식년 한 해 전, 즉 前式年 가을에 마치고 식년에 와서는 복시와 전시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식년에

11) 응시생이 작성한 답안지는 本草라고 불렀다.

12) 『조선왕조실록』, 현종 1년(1659) 7월 25일을 보면 “議政洪奭周啓言，文科增式年別試及庭試之有易書，蓋欲以防奸也，設法本意，專欲使爲主司者，不得見舉子之筆跡，而今之所謂易書，只贊篇首數行，及其考校之際，無難取看其本草，事之不誠，莫此爲甚，如欲一依舊規，盡贊全篇，則見今一場對策之文，輒至累千張，贊寫考準之際，將不免拖到屢旬，且寫役既甚不些，書手亦當益多，鎖院之內，添却許多閑雜之人，求其清肅，又安可得。至於外邑，易書其弊尤甚，能書之吏，遍排列邑，紙墨之費，皆出科斂，貽害小民，尤所當恤，蔽一言曰可罷無疑，如或以流來成典，有難一朝盡罷，則先從初試殿試，而除其易書，亦足使存舊章革流弊之意，兩行不悖，而科規變通，事體不輕，請博詢處之，因大臣禮曹館閣堂上收議僉同，命毋論初會試，一併革罷。”라고 나온다.

와서 초시와 복시와 전시를 모두 진행한 예가 의외로 많이 있었는데, 이때의 역서는 간단치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역서가 이루어졌던 문과의 문호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사 전공자들이나 혹은 조선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은 한결 같이 일반 양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점은 외방별시의 운영 과정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외방별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양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개설하는 일종의 慰撫科였다. 오늘날의 이북 삼도 지방에 해당하는 곳에서 실시한 외방별시와 제주도에서의 외방별시가 대표적인 예들인데, 이 외방별시는 반드시 해당 시험이 치러지는 지역이 속한 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주별시의 경우는 제주도 내에, 평양별시에는 평안도 내, 전주별시는 전라도 내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만 응시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또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 3식년, 즉 9년 이상을 거주해 왔으며 해당 지역 내의 靑衿案이나 儒生案과 같은 각종 儒籍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조건을 어기고 응시한다면 그래서 만약 급제까지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 처벌은 대부분 水軍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지만, 아무튼 규정을 어긴 데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다.¹³⁾

필자는 이 외방별시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호 개방의 모습이 역서제도가 적용된 각종 문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식년시와 증광시 그리고 별시와 외방별시의 초시에 몰리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초기, 한성부 초시에 1천 명이 응시하였는데, 이를 두고도 많이 몰려들었다고 할 정도였으니,¹⁴⁾ 외방 초시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응시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필자가 그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나의 초시 시소에 만 명 이상이 몰린 예는 없었다.

따라서 역서제도가 적용된 문과의 시험장은 복잡하지 않았다. 응시생과 응

13) 외방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만오, 「조선시대 외방별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한국민족문화』 68, 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1443) 12월 3일을 보면 “舊例文科漢城試、京畿鄉試，皆以三十人爲定額，永樂十五年閏五月間，本曹獻議 京畿州郡，本爲直隸，別設鄉試未便，於是罷京畿鄉試，然今人材滋盛，漢城試應舉者，多至千餘，及期講試爲難，且不能精察必矣，依舊例復立京畿鄉試，進士生員依此例，亦設京畿鄉試。”라고 나온다. 위 1천명은 경기도와 서울 응시생 수를 다 합한 수였다.

시생 사이의 간격도 6자(尺)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로운 편이었다.¹⁵⁾ 그러다 보니 옆으로 길게 늘어지는 답안지를 사용하여도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글씨에 소질이 없거나 혹은 팔을 다쳐 글씨를 대신 써줄 代筆者를 대동한다 하더라도 비좁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역서제도가 적용된 문과의 운영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그 점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응시생은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에 어떤 글자를 쓴 이후, 그 글자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래서 수정을 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정 사실을 시험관에게 보고하고, 수정 글자 위에 날인을 받아야 했다.¹⁶⁾ 만약 답안지에 수정된 글자가 있는데 그 위에 수정 사실을 확인 받았음을 의미하는 날인이 없으면, 그 답안지는 아예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역서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임은 당연하다.

가로형 시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점은 시지에 응시생 본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그의 四祖를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사조란 물론,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와 외조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적도록 한 이유는 물론 응시자의 신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명단을 방목 형태로 만들어 한성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 한성부에서는 전국에서 올라 온 합격자들의 인적 사항을, 한성부에 보관 중인 전국 360여 고을의 3식년 간 호적대장 내용과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시권에 기재된 내용과 호적대장에 적힌 내용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그 이유를 해명해야만 했다. 그리고 만약 제대로 된 해명을 내 놓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되었다. 신원 파악에 철저를 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조를 적은 이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세로형 시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조를 쓰지 않았다.¹⁷⁾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을 적도록 하였다. 하지만 가로형 시권에서는 반드시 사조를 쓰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가 오직 응시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보다는 응시생이 어디에 거주하

15) 『조선왕조실록』, 세종 26년(1444) 2월 4일을 보면 “擧子隔六尺而列坐, 不得聚頭與語.”라고 나온다. 이는 식년시 문과와 생원진사시 때의 규정이었다.

16) 이를 踏印이라고 하였다.

17) 세로형 시권에는 四祖를 쓰지 않았다. 응시생 본인의 인적 사항과 아버지의 이름만 적었다. 다만 영조 19년(1743) 이후 치러지는 일부 정시에서는 예외가 있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는 누구의 자손이고, 어떤 집안의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조처였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응시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함께 집안도 고려하였던 것이다.

가로형 시권에서 응시자의 인적 사항과 사조에 관한 내용은 시권의 맨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적도록 하였다. 이 부분을 謹封이라고 불렀다. 당초는 이 부분에 큰 종이를 붙였는데,¹⁸⁾ 시관들이 이 종이를 열어보는 부정을 저지르자, 그 뒤로는 그 부분을 둘둘 말은 뒤, 윗 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아래 부분들 모두 세 곳을 종이 띠지로 묶은 후, 띠지 위에 근봉이라는 글씨를 써 넣도록 하였다. 그것을 봉미법이라고 하였다. 둘둘 마는 이유는 당연히 시험관이나 역서 서리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역서도 이 근봉 부분은 제외하였다. 채점 과정에 사정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봉미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시험관이 몰래 근봉 부분을 열어 보는 일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띠지에 쓸 근봉이라는 글씨를 시험 전에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받아 와, 시관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 모두가 다 채점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행위들이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근봉이라는 글씨를 목판으로 새겨 찍게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그 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결국 효종 2년(1651)에 치러진 신묘식년시 이후부터는 할봉법을 도입하게 된다. 할봉법이란 근봉 부분을 아예 칼로 도려내는 것을 말한다. 시권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근봉 부분과 답안 내용이 적힌 부분¹⁹⁾을 칼로 오릴 때는, 나중에 서로 쉽게 짹을 찾을 수 있는 표식을 남겼다. 예를 들어 三天이나 一黃이니 하는 식이었는데, 이 표식은 모두 세 군데에 남겼다. 근봉 부분과 답안지 부분 그리고 근봉 부분과 답안지 사이의 間印 형태였다. 간인 부분은 그러니까 삼천이라는 표식을 예로 한다면 그 글씨의 절반은 근봉 부분에, 절반은 답안 부분에 남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할봉은 응시생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응시생은 근봉 부분을 접어서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답안지가 모두 겉히면 割封官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였다.²⁰⁾

18) 이를 翻名法이라고 하였다.

19) 근봉 부분을 皮封部, 답안 부분은 本體部라고도 한다.

20) 봉미법이나 할봉법은 소과에도 적용되었다.

이 할봉법이 가로형 시권에서는 대체로 철저하게 지켜진 듯하다. 오늘날 남아 있는 문과 시권을 보면 대부분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들인데 예외 없이 근봉 부분과 답안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로형 시권에서는 이 할봉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듯하다. 할봉법이 도입된 이후에 작성된 세로형 시권을 보면 근봉 부분이 자르지 않고 이전처럼 돌돌 말려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는 세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시험의 관리가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시험보다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3. 세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문과

세로형 시권이란 가로가 세로보다 긴 형태의 시권을 말한다. 그렇다고 가로 세로의 비율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다. 대개는 1대 1.5 정도였다고 보면 된다. 반면 가로형 시권은 그렇지 않았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보다 몇 배 넘는 것이 보통이었다. 다 펼치면 10여 미터를 훌쩍 넘은 예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면적으로 본다면 세로형 시권이 가로형 시권보다 작은 편이었다고 보면 된다.²¹⁾

문과 가운데 세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시험으로는 우선 정시와 알성시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정시와 알성시에서는 왜 가로형 시권을 쓰지 않고 세로형 시권을 썼던 것인가.²²⁾ 그리고 왜 면적이 작은 시권을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일까. 혹 세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이고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서였던가. 그렇다면 왜 식년시와 증광시와 별시와 외방별시에서는 세로형 시권을 쓰지 않았던 것일까 하는 여러 의문이 생긴다.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우선 정시와 알성시라는 시험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정시는 조선 초기부터 실시되었는데, 정시는 원래 문과가 아니었다. 성적

21) 세로형 시권은 사용 방법이 있었다. 세로 방향으로 6번을 접고 가로 방향으로 5번을 접었다. 그러면 가로로 7개의 직사각형이, 세로로는 6개의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전체를 계산해 보면 42개가 된다. 접을 때 상단은 적게 하고 그곳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다.

22) 박현순은 정시와 알성시에서 세로형 시권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 두 시험이 원래 과거가 아니라 시재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박현순, 「조선후기 시권에 대한 고찰-시종별 시권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1, 2012).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문과로 승격한 이상, 정시와 알성시에서도 식년시나 증광시나 별시의 문과와 마찬가지로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계속 세로형 시권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우수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는 試才였다. 하지만 세종대 이후가 되면서 일부 정시를 문과로 운영하게 된다. 식년시나 증광시처럼 정시에서도 급제자를 선발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정시를 문과로 운영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정시를 문과로 운영한 이후로도 예전처럼 시재 형태로 남아 있는 정시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성격의 정시는 점차 사라지고 결국 정시는 문과의 한 종류로 자리를 잡게 된다.

정시가 문과로 탈바꿈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정시를 慶科의 하나로 간주하게 된 일과 관련이 있다. 경과란 왕실에 어떤 경사가 있을 때, 그 경사의 기쁨을 전국의 모든 양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하는 이른바 同慶科를 지칭한다.²³⁾ 왕실에서 생긴 경사의 기쁨을 왜 전국의 양반들과 함께 누려야 했느냐 하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왕실과 양반은 서로가 남남이 아니요, 서로 함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왕실의 기쁨이 곧 양반의 기쁨이었던 것이다.²⁴⁾

그런데 정시를 문과로 간주하기 전에도 동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문과는 있었다. 바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증광시와 별시였다. 증광시는 모두가 경과였으며, 별시도 그 중 대부분은 동경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이미 두 종류의 경과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다른 종류의 경과를 도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를 경과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

그 사정이란 다름이 아니라 경사의 무게와 문과의 등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는 이른 바 稱格 때문이었다. “因慶設科 當觀慶之大小矣” 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경사 때문에 경과를 개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경사의 무게와 문과의 격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²⁵⁾ 예를 들어, 같은 왕실의 경사라고 하더라도

23) 경과는 반드시 문과로만 마련하였다. 무과나 생원진사시를 경과로 설치한 일은 없었다. 무과나 생원진사는 그저 문과에 병설되는 과거였을 뿐이다. 문과만이 양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음은 물론이다.

24) 양반을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간주한 점은 외방별시의 존재로도 알 수가 있다. 앞서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문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방별시는 외방에 거주하는 양반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마련하였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외방 양반들을 위로해 주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타인이 아니요, 나와 같은 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중원에 청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명나라 황실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조선에서 경과를 설치한 적이 세 차례 정도 있었다. 그것 역시 명나라 황실의 기쁨은 조선의 기쁨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일이었다.

25) 경과의 격은 우선 최종 선발 인원과 병설되는 과거의 수에 있었다. 그리고 경과로 운영되는 증광시를 대소로 구분하고 별시를 육백과 삼백으로 구분하고 정시를 대소로 구분한 것도 모두 시험의 격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만오, 「조선시대 비정기 문과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1)-별시, 정시, 암성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82, 서울역사편찬원, 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도 왕의 즉위와 세자의 환후 평복이라는 경사의 무게가 같을 수 없었고, 또 같은 평복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평복과 왕비의 평복을 동일 선상에 두고 평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왕의 즉위와 같이 가장 의미 있는 경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증광시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경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시를 설치하였던 것인데, 문제는 별시를 개설하기 애매한 가벼운 경사가 생겼을 때였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정시를 경과로 간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시를 문과로 간주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시험 운영 과정에 드는 경비의 절감이었다. 사실 문과를 한 번 치르는 데 소비되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棘圍의 설치, 塗裝, 해제, 역서 등 수 많은 일들을 치러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었다. 당연히 정부로서나 혹은 시장이 설치되는 외방의 입장에서나 과장 설치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²⁶⁾ 이에 정부로서는 문과를 마련하되, 좀 더 경제적인 시험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결국 정시를 문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결정되었던 것이다.²⁷⁾

정시는 원래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을 殿庭으로 불러 들여 보는 시험이었다. 한 번의 시험만으로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였고, 역서의 과정이 없었다. 따라서 증광시나 별시처럼 여러 번의 시험을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역서나 시험장 설치 과정에 드는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에 정시를 문과로 운영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잇점이 있었던 것이다.²⁸⁾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시를 문과로 운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양반들에게 궁궐과 왕의 모습을 구경시켜 주자는 데 있었다. 조선시대를 사는 양반들에게 있어 궁궐은 살아생전 반드시 한번쯤은 가보야야만 하는 마음의 고향이요, 뜬 왕은 반드시 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왕은 자신들의 대변자요 그리고 그 왕이 사는 궁궐은 곧 자신들의 집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양반들에게 있어 궁궐을 방문하는 일은 오늘날 우

경과에서 격을 따진 이유는 조선이 철저한 유교사회요 그래서 질서를 중시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26) 이와는 반대로 엄청난 경제 효과도 유발되었다. 이는 오늘날 전국체전이니 올림픽을 여러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과거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글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27) 조선후기에 이르면, 증광시나 별시에 걸 맞는 경사가 발생하더라도 증광시나 별시가 아닌 정시를 경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경우 으레 경제적인 문제를 표면에 내 세웠다.

28) 조선의 문과는 건국 이듬해인 태조 2년(1393)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 502년 동안 748회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정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도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한 결과였다. 증광시나 별시를 개설할 정도의 경사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정시를 마련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리들이 흔히 경험하고 있는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와 같은 행사로 간주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양반 가운데 궁궐을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관직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식년시나 증광시나 별시의 최종 시험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니라면, 궁궐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²⁹⁾ 하지만 관직자라고 해 봐야 수 천 명에 불과하였고, 식년시와 증광시 혹은 별시의 전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야 1년에 겨우 몇 백 명을 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전국의 양반들에게 보다 쉽게 궁궐과 왕의 모습을 구경시켜 주어야 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정시를 문과로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따라서 정시는 양반이라면 그 누구라도, 식년시나 증광시나 별시나 외방별시처럼, 유적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양반도 응시가 가능하였다.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한 시지도 관에서 제공해주었다.³⁰⁾ 심지어는 봇과 먹을 줄 때도 있었다. 빈손으로 와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지원 절차도 매우 단순하였다. 시험 전날 와서 시험 보겠다고 이름을 적은 후 자리만 배정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四館에서 진행하는 녹명의 절차도 없었고³¹⁾ 조흘의 과정도 없었다. 부자 상피도 없었다. 심지어는 외방의 수령도 응시가 가능하였고, 유별 중에 있는 자도 입장이 가능하였다. 심지어는 역적의 자손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시험지에는 사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만 쓰도록 하였다. 응시생의 집안이나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따지지 않았다. 또 수백 년 동안 단 한 사람의 관직자도 배출하지 못한 한미한 집안의 사람이라도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었다. 여기에 또 시험 공고일과 시험일 사이에는 언제나 충분한 간격을 두었다. 정말 몇몇 특별한 경우가

29) 간혹 관직자를 친구로 둔 사람이 관직자의 도움을 받아 궁궐을 찾는 경우도 있었을 법하다.

30)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1월 5일을 보면 “祖宗朝 庭謁聖則頒給正草於舉子 其紙品之薄劣 臣亦得見於登科人家矣 卽今財力 比古懸絕 雖不能頒給 而若以戶曹所有可合正草之紙 印標發賣 見其印標 然後始許打印 則務用好品之弊 庶可矯革矣”라는 나온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정시와 알성시에서의 시지는 개인이 준비하는 쪽으로 바뀐다. 그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 상태가 여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1)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1696) 8월 22일을 보면 “庭試謁聖，無四館錄名之事，故士子之被罰者，雖或冒赴，本非朝家之許赴，今乃許儒生冒罰赴舉，非礪士風之道，請依前聖教，勿令許赴。”라고 나온다.

제외하고는, 언제나 저 멀리 제주도에 사는 유생들도 정시 개설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시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유생들이 모여 들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 만 명은 기본이요, 심지어는 10만, 20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³²⁾ 물론 그들 중에는 급제를 바라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왕과 궁궐의 모습을 구경하고자 하는 자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응시생이 대필 등을 위해 수종하는 자들로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험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다.

시험장의 혼잡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 옆 사람과의 간격도 충분치 못하였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였다. 또 잘못 쓴 글자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그 수정 사실을 시험관으로부터 확인 받는 일도 불가능하였다.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正殿인 근정전과 인정전 앞뜰이나 혹은 좀 더 넓은 광화문 앞에 시장을 마련한다고 해도 혼잡함을 피할 수는 없었다.³³⁾

그러다보니 정시에서 생산된 그 많은 답안지를 역서한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아울러 그 복잡한 시험장에서 옆으로 길게 늘어진 가로형 시권을 펼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어쩔 수 없이 가로형 시권보다는 적은 형태인 세로형 시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시에서는 적은 시지에 字句를 모두 담을 수 있는 賦나 表가 부과되는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때로는 책문처럼 길게 써야만 하는 試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설령 책문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세로형 시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³⁴⁾

응시생의 인적 사항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적어야 하는 근봉 부분은 시권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의 선발 인원은 언제나 적었다. 결이 낮은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경쟁률이 보통 수 천 대 1이었는데, 그래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시 참여자 중 낙방자를 구제해 주는 시험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後庭試다. 후정시에서는 급제자가 아니라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였는데,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몇몇 사람에게는 직부전시의 자격이 주어졌다. 이 후정시에 대한 내용은 송만오, 「조선시대 後庭試에 대한 몇 가지 검토(1)」, 국학연구 27, 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33) 정시에서의 채점 과정이 엉망이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시에서의 선발 과정에는 私情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정시에서의 급제자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알성시의 급제자처럼 서울과 경기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이 많았다. 외방에 거주하는 자가 정시나 알성시에서 급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庭謁不下於漢江”이니 “庭謁聖及第 不渡漢江”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

34) 세로형 시권을 접어서 사용토록 한 것도 그 좁은 시장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의 맨 오른쪽 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 폭과 길이를 보면 폭은 으레 3cm-5cm 정도, 길이는 10cm-15cm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할봉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맡에서부터 돌돌 위쪽으로 말아 풀로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할봉법이 실시된 이후로는 근봉 부분을 칼로 도려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말아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정시의 관리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시가 경과로서의 의미와 함께 궁궐 개방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알성시는 勸學의 의미와 함께 문묘의 개방이라는 목적을 지닌 시험이었다. 알성시도 원래 성균관과 서울의 사학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유생들의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 경우, 알성시의 당연히 문호는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에게만 개방되었다.

그런데 알성시 시험장이 마련되는 성균관과 문묘는 양반이라면 반드시 한번쯤 가 보아야 하는 일종의 聖地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그곳이 항상 개방되는 곳은 아니었다. 봄과 가을 釋奠祭 때 문묘가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양반이 참여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외방 거주 양반들이 문묘를 찾고 先聖 先賢을 배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알성시를 기회로 양반들에게 문묘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알성시의 문호를 전국의 모든 양반들에게 개방하기에 이른 것이다.

알성시가 지닌 이러한 목적 때문에 알성시의 운영 방식도 정시와 다름이 없었다. 시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양반이라면 그 누구라도, 가난하건 부자건, 한미한 집안의 출신이건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건, 유적이 이름이 올라 있건 그렇지 못하건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정시처럼 시험을 치르는 데 꼭 필요한 시험지나 붓 그리고 먹도 역시 宦에서 제공해 주었으며, 시지에도 정시처럼 자신의 인적 사항과 아버지의 이름만 적도록 하였다. 사조를 적을 필요가 없었다. 근봉 방식도 정시와 같았다.

그러다보니 알성시 시험장의 사정도 정시와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문호가 전국의 모든 양반들에게 개방되는 알성시³⁵⁾가 한번 열릴 때마다 으레 전

35) 알성시의 문호가 언제나 전국의 모든 양반들에게 개방된 것은 아니었다. 알성시 문호 개방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였다. 성균관 유생에게만 개방하는 경우,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에게만 개방하는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양반들에게만 개방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양반들에게 개방하는 경우 등이다.

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비천당 앞이나 명륜당 앞에 마련되는 시험장이 복잡했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였는데, 그 혼잡함은 당연히 정시보다 더 심했다. 정시 시장은 正殿의 앞뜰이라는, 그래도 비천당이나 명륜당보다 넓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곳이 좁으면 광화문 앞 광장이라는 좀 더 트인 곳을 활용함으로써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알성시는 성균관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숙종 12년(1686) 봄에 치른 알성시 때, 응시생끼리 서로 먼저 입장하려다가 몇몇 사람이 壓死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³⁶⁾

숙종 12년 봄에 벌어진 위 사건은 알성시와 정시에 초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두 시험의 응시자들이 결정되면, 그들을 우선 세 군데로 나누어 1차 시험을 치르고, 그 1차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성균관이나 궁궐 내에서 치르는 2차 시험에 참여시키자는 식이었다. 그러니까 알성시와 정시를, 마치 서울에서만 초시를 실시하는 별시처럼 운영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알성시와 정시가 지니는 중요한 목적, 즉 그 시험을 이용하여 문묘나 혹은 궁궐을 구경시켜주겠다는 목적이 퇴색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당연히 문묘나 궁궐에서 치르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알성시와 정시에 초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쉽게 매듭짓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압사 사건이 벌어진 지 50여 년이 지난 영조 19년(1743)에 이르러 마침내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³⁸⁾ 그 결론의 요지는 알성시는 제외하고 정시의 일부에서만 초시를 치르자는 방안이었다. 알성시를 제외한 이유는, 알성시 시험장은 알성시의 문호 개방 범위에 따라 복잡하지 않은 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부 정시에서만 초시를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앞서 두 차 언급하였던 정시가 지닌 또 다른 목적, 즉 궁궐 개방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자는 의도에서였다. 응시생 모두를 궁궐로 불러들이는 기회를 아예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영조 19년(1743)에 마련된 정시 초시제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우

36) 숙종 12년(1686) 봄에 치른 丙寅謁聖試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만오, 『조선시대 문과백서』 중, 조인출판사, 2018에 실린 № 356. 肅宗 12年(1686) 丙寅謁聖試榜 설명문에 수록되어 있다.

37) 이 점에 대해서도 송만오, 「조선시대 비정기 문과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1)-별시, 정시, 알성 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82, 서울역사편찬원, 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38) 정시에서 처음으로 초시를 실시한 시험은 영조 19년(1743) 9월에 치른 癸亥庭試였다.

선 어떤 정시에서 초시를 실시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그것은 왕의 친립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왕이 시험장에 친히 참여하는 치르는 정시는 그 시험을 전시로 간주하고 초시를 생략하기로 하였다. 반면 왕이 시험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1차 시험으로 간주하고 1차 시험을 불러들여 궁궐에서 진행하는 2차 시험에는 왕이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초시 선발 인원은 당초 1,000명 혹은 500명이었다. 이는 대정시와 소정시 사이의 차이였다. 그러나 정시 초시에 써야 하는 내용은 이전 정시 때와 다를지 않았다. 시지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세로형 시권을 사용하였고, 근봉 부분에도 응시생의 인적사항과 아버지의 이름만을 적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정에서 치르는 2차 시험 때는 그렇지 않았다. 별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시지에 응시생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조를 반드시 적도록 하였다. 급제자를 선발할 때 그의 집안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였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시 시지만은 역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정시에서의 초시는 현종대 이후가 되면 외방으로 확산되어 실시된다. 마치 외방에 초시 시장을 설치하는 별시처럼, 각 도별로 초시 시험장이 마련되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서울의 궁궐에서 진행되는 2차 시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별시 초시처럼 초장과 중장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그렇다면 별시처럼 운영되었던 외방의 정시 초시에서 사용한 시지는 어떠하였을까. 별시처럼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까. 그리고 역서의 과정도 있었을까. 세로형 시권을 사용해야 했는데 가로형 시권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되었는지 등이 궁금하지만 아직 분명한 바를 모르겠다.³⁹⁾ 어떤 형태의 시권을 사용하였는지는 문호 개방의 범위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근봉 부분에 예전처럼 본인의 인적 사항과 아버지의 이름만 적도록 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역서는 있을 수 없었다. 역서제는 이미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 치러졌던 외방별시 중에 정시처럼 운영한 예가 있었다.⁴⁰⁾ 이런 외방별시에서는, 마치 정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부자상피도 없

39) 정시 초시에서 작성된 시권 중 가로형이 어쩌다 보이는데, 그 기로형 시권이 이 때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급제를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정시에서 사용한 시지 또한 일반 정시처럼 세로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직은 실물로 확인한 상태는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4. 맷음말

정시에서 전시를 실시하고 그 전시 시권을 역설했던 모습을 보고 필자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만약 정시와 알성시를 식년시나 증광시나 별시처럼 운영하였다면 과연 세로형 시지를 고집하였을까 하고 말이다. 문호를 제한된 사람에게만 개방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응시생이 차지할 수 곳에 여유를 두었다면 정시와 알성시도 가로형 시지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또 모든 시험을 역설히 않았겠느냐 그래서 급제자의 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과는 관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문과 급제자에게 관직을 부여한다는 점은 법으로 규정한 일이다.⁴¹⁾ 따라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간혹은 정말 형편 없는 실력의 소유자가 급제를 받는 예도 있고 또 급제자 선발 과정에 사정이 개입된 예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급제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급제자가 더 많았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느 한 조직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국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국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염연한 사실이다.

양인 이상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고 하는 설명도 그렇지만, 오늘날 조선의 문과를 논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선의 문과에 대해 관리가 엉망이었고 그래서 급제자의 선발 과정도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문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20여 년 동안

40) 숙종 43년(1717)에 치러진 丁酉溫陽庭試가 그 대표적인 시험이다.

41) 따라서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면 보면 된다.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관직을 거부한 경우였을 뿐이다.

문과를 공부해 온 필자가 보기에 전체 문과의 운영이나 급제자의 선발 과정은 그렇게 엉망이지 않았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살펴본 시지의 관리 모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2

朝鮮 科試 資料의
存在 樣相과 그 分類 試論

김 광 년
(KAIST)

朝鮮 科試 資料의 存在 樣相과 그 分類 試論

김광년(한국과학기술원)

- 목차 -

1. 머리말
2. 조선 과시 자료의 분류
3. 조선 과시 자료 존재 양상
4. 맷음말

1. 머리말

朝鮮 時代 科試에 대한 학적 관심은 60~70년대에 宋俊浩, 曹佐鎬, 李成茂 교수 등 史學界 先學들의 주도로 본격화된 아래, 지금까지 50여 년 星霜 동안 양과 질 양면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룩해 왔다. 사학계에서 주도해온 과시 연구를 一瞥해 보면, 그것은 특히 과시 제도의 성립 및 그 시행의 양상, 합격자(급제자)의 인적 정보와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시 전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과시에서 답안으로 제출된 작품들, 즉 科文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특히 과문은 조선 시대의 정치, 사상, 문학 등 사회 전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조선 시대 문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과문 수련기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조선 시대 문학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과문은 과거 제도와 더불어 조선 시대 과시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학계에서는 과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었고, 文學界에서는 과시 및 科文 등의 문학적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일 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문은 문학계에서든 사학계에서든 적극적으로 연구 대상에 편입되지 못하는 쳐지에 놓여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과문의 문학적 가치에 새로이 주목하여 관련 성과가 조금씩 산출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시에 대한 집단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면서⁴²⁾ 과시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관심도 이전에 비해 훨씬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 논문은 조선 시대 과시 및 과문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한 학문적 관심의 일환으로, 조선 시대의 과시 자료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조선 시대 과시 자료의 존재 양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조선 과시 자료의 분류

조선 과시 자료의 분류를 위해, 먼저 기존의 과시 자료 분류 논의를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과시 자료의 분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과문을 주제로 가장 먼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상욱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과시 자료의 梗概를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과시 자료를 분류하였다.⁴³⁾

①科文集

- 시권모음집, 과시시권집, 과부시권집, 과표시권집, 과책시권집, 기타

②科文選集

- 과시선집, 과부선집, 과표선집, 과책선집,

③科文參考書

- 작법류 참고서, 유초류 참고서, 기타 참고서

이상욱의 분류는 과시 자료들 중에서 과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그의

42) 현재 조선 시대 과시를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①고려대학교 한자한문 연구소,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019-2025. ②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조선시대 과거 연보 DB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정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023-2029. ①은 문학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과시의 문제 및 답안, 참고서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DB를 구축하는 연구이고, ②는 사학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科舉 年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DB를 구축하는 연구이다.

43)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17-64면.

학위논문의 주제가 과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는 과문의 상위 분류로 과문집, 과문선집, 과문참고서 세 항목을 설정하고, 하위 항목에서 좀 더 세분화한 분류를 제시하였다. 분류의 충차를 달리하여 좀더 세분화된 분류를 하였다는 것은 이상욱의 분류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문집 항목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다시 과문선집이라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한 부분은 이견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상욱은 과문집은 “時系列 試券”⁴⁴⁾ 모음집이라고 하여 官 주도로 편찬된 과문집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즉 科作集이나 국가 주도로 편찬된 과문집⁴⁵⁾ 일반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시험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과문집 또한 이 부류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그것들이 관 주도로 편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⁴⁶⁾ 뿐만 아니라 그가 민간의 과문집으로 보고 있는 자료들에서도 시험 및 작자 정보가 명시된 것들이 있어서, 과문집을 관 편찬의 과문집과 민간 편찬의 과문선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한편, 주목할 만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며 최근의 과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 중 한 명인 박현순은 조선 시대 과거 수험서, 조선 시대 과문 자료 등에 대한 논고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시 자료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⁴⁷⁾

- ①科作集
- ②科題集
- ③科文作法集
- ④科文抄集
- ⑤科文私集

44) 여기에서 ‘시권’이라는 용어는 실제 시험에 제출된 답안 자료라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45) 이를테면 지방에서 치러진 별시의 합격 답안 모음인 賓興錄, 『臨軒功令』과 같은 종합적인 과문 자료집, 초계문신의 과문을 모은 『奎華名選』 등을 들 수 있다.

46) 『임현공령』의 경우, 그것이 정조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양한 문헌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광년, 「정조-고종 연간의 과문집 『임현공령』 연구」,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참조.

47)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박현순의 분류는 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상욱의 분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작집, 과제집 등을 분류 항목에 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문집을 초집과 사집으로 분류해 놓은 부분도 특징적이다. 사집은 3장에서 일부 다루었던 습작집을 지칭하는 것인바, 박현순은 사집을 습작집으로 단정하였다. 이상의 분류 외에, 박현순(2021)에서는 정조대의 과작집 등 기타 분류를 추가하였다.⁴⁸⁾ 다만 이는 규장각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에 기인한 추가 분류이고 과시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류로서는 의미가 크지 않아 보인다.

박현순의 분류는 공적 과문집과 사적 과문집을 두루 배려한 점이 돋보이나, 성격이 다양한 과문집을 초집/사집으로만 분류하여 자료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된다. 박현순의 분류에서 빠진 것들을 보충하고, 이상욱의 분류를 수용하여 상위-하위 항목으로 구분해 과문집을 분류한다면 좀더 실상에 가깝게 과문집을 분류하고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 두 분류 방안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다소 수정된 분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두 분류 방안이 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과시 자료 전반을 분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상욱의 분류와 같이 상위-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다양한 과시 자료를 분류 대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제안하는 과시 자료 분류 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과시 관련 공적 문헌

-법전 / 방목 / 시권 / 기타 공문서류

②과문 및 과규집

-과작집 / 과규집 / 과제집 / 과시집 / 과부집 / 과표집 / 과책집 / 사서의집 / 오경의집 / 잡명송집 / 종합 선집

③과시 관련 역사 기록

48) 박현순, 「조선후기 科文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 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83집, 한국한문학회, 2021.

3. 조선 과시 자료 존재 양상

조선 시대의 과시 자료는 그 분포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여기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류 방안에 따라, 과시 자료의 존재 양상을 실제 사례와 더불어 개관한다.

가. 과시 관련 공적 문헌

과시 관련 공적 문헌으로는 법전의 관련 규정, 大小科 榜目, 試券 및 기타 공문서 등이 있다. 기타 공문서는 照訖帖, 直赴帖을 비롯한 각종 공문서들이다. 이중 주요 자료에 대해 개관한다.

1) 法典

과시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조선 시대의 법전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조선 시대 법전의 과시 관련 규정은 『經國大典』의 관련 조항들을 기본 뼈대로 하여 시대별로 조금씩 변천을 겪어 왔다. 이들 법전 자료에는 과시의 종류 및 시험 과목을 필두로 하여 각종 별시의 시행 방법, 응시 자격, 답안 작성 방법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테면 『경국대전』에서 諸科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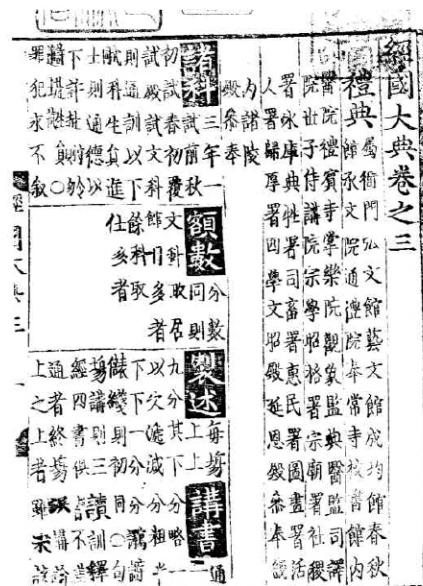


그림 1 규장각 소장 『경국대전』

3년에 한 번 시험을 치르는데, 전년 가을에 初試를 치르고 초봄에 覆試와 殿試를 치른다. 문과는 通訓大夫 이하[무과도 같다], 생원, 진사는 通德

郎 이하에게 응시를 허락한다. [守令은 생원시나 진사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⁴⁹⁾

위 인용문은 과시 일반의 시행 절차와 응시 자격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 하위 항목으로 시험 단계별 試取 額數, 시험 과목 등 보다 상세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어 과시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⁵⁰⁾ 이와 같은 법전 자료는 시대별 과시 제도의 변천 양상을 살피는데 반드시 참조되어야 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법전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 朝野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를 다양한 문헌 자료들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조선 과시 제도에 대한 좀더 세밀한 논의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출간된 『역주와 해설 조선 과시 법전』⁵¹⁾은 조선 법전에서 과시 관련 항목을 추려내어 번역하고 간단한 해설을 붙인 것으로, 이 방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고할 만하다. 다만 해설의 내용에 있어서 집필자에 따른 경중의 차이가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만하다. 향후 보다 다양한 법전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증보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보다 앞서 출간된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⁵²⁾은 과거 제도 관련 용어를 상세히 해설한 저술로서 과거 제도 및 과 규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이 수록된 사전으로, 『조선 과시 법전』과 상호 참조하여 조선 과시 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저술로서 소개할 만하다.

2) 榜目

방목은 대소과 과거가 종료된 후 제작하는 일종의 과거 白書이다. 시험 관련 지시사항, 시험 일정, 시관 명단, 합격자 인적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해당 시험과 관련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 자료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합격자 명단 외에도 시험 장소별, 과목별 문제 자료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규장각에 소장된 『崇禎三甲寅慶

49) 『경국대전』「禮典 諸科」, “三年一試, 前秋初試, 春初覆試·殿試. 文科, 則通訓以下[武科同], 生員·進士, 則通德以下許赴. [守令, 則勿許赴生員·進士試]”

50) 그림 1에서 ‘諸科’ 항목 아래에 ‘額數’, ‘製述’, ‘講書’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과시연구센터 편역, 일다, 2023.

52) 원창애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科庭試文科榜目』(그림 2)을 통해 1794년(정조 18) 2월 25일에 치러졌던 경과시(慶科試) 초시(初試)의 시험 문제를 도표로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 장소	문체	문제
1소	부	宵雅肆三官其始
	표	擬宋翰林學士司馬光 謝以如兩漢制誥 仍命置告懷中
2소	부	景星出 卿雲興
	표	擬陶唐群臣 賀華封人祝壽富多男子
3소	부	南面而聽天下 隫明而治
	표	擬周群臣 賀思皇多士 生此王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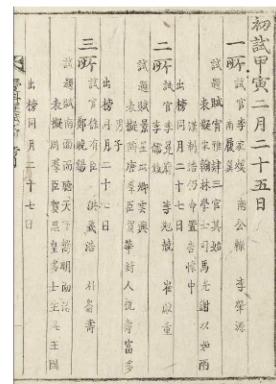


그림 2 규장각 소장 『승정삼간인경과정시문과방목』

3) 試券

시권은 실제 과시에 제출된 답안 자료의 통칭으로,⁵³⁾ ‘科紙’ , 또는 ‘試紙’ 등으로도 불린다. 시권도 과문집과 마찬가지로 각급 기관 및 개인 소장 가들이 매우 많아 그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없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검색 결과로는 고문서 이미지 자료에서 500여 건 가량의 시권 자료들이 확인되며, 각급 도서관의 고전적 목록 상으로도 500여 건에 가까운 시권 자료가 확인된다. 시권 중에서 합격 시권의 경우는 후손가에서 대대로 소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조사되지 않은 시권 자료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고문서 경매 시장에서도 흔치는 않으나 끊임없이 시권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권의 가치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인적사항을 적은 名紙 부분의 유무, 그리고 합격 답안 여부가 중요하다. 명지 부분이 없으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치를 제대로 판명하기가 힘들고, 합격 답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만큼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합격 여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권에 붙어 있는 籤紙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합격 답안의 경우에는 명지와 답안 본문 사이에 첨지를 붙여 해당 답안의 합격 순위를 적어 놓기 때문이다. 아래에 시권의 사례 한 가지를 든다.

위 그림 3은 개인 소장의 시권으로, 1858년(철종 9) 식년 진사시 초시 二所

53) 시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류 및 개관은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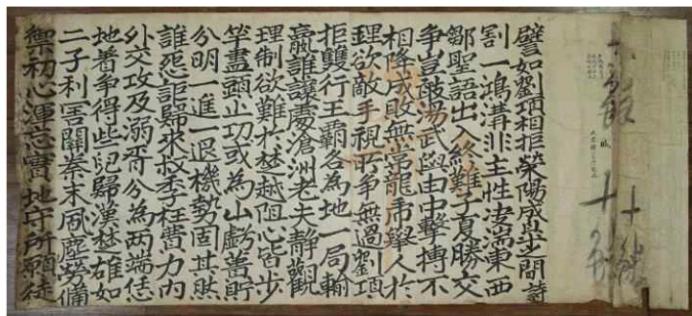


그림 3 개인 소장 권중덕 시권에서 제출된 답안이다.⁵⁴⁾ 작성자 권중덕은 次下의 성적으로 낙방하였다. 이 자료는 낙방 시권이기는 하나 명지 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보존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험의 賦 문제 및 시관 명단, 시험 시행 일시도 메모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러한 낙방 시권들은 落幅紙라 불리며 다양한 곳에 재활용되었던 바,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그 문화사적 의미가 규명된 바 있다.⁵⁵⁾

나. 과문 및 과규집

과문 및 과규집은 과문을 모아놓은 다양한 과문집 자료 및 과문 작성법을 정리한 자료 등을 한데 묶은 것이다. 이중 주요 자료에 대해 개관한다.

1) 과문집

과문집은 과문을 모아 놓은 개별 도서를 가리킨다. 과문집은 과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문체들에 걸쳐 매우 많은 양이 현전하고 있는데, 각급 기관에 상당한 수량이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⁵⁶⁾ 개인 소장 자료들도 그 숫자가 상당하여 아직 자료의 전모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⁵⁷⁾

과문집은 그 내용이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54)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55)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낙폭지의 재활용 문화」, 『민족문화연구』 97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56) 필자의 조사 결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총 278종,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총 97종의 과문집이 소장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광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92집, 동양고전학회, 2023 : 「규장각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과 그 특징」, 『한국문화』 107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4 참조.

57) 고서 경매 현장에서는 袖珍本의 형태로 만들어진 과문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 1만 원 이하의 염가에 거래되곤 한다.

科作集 : 지방에서 치러진 公都會 등의 결과를 중앙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합격자 명단과 합격 답안을 成冊한 것으로, 표제가 ‘~科作’으로 되어 있다. 이들 과작집은 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고를 위해 내용을 정서해 놓아서 상태가 좋은 반면, 분량이 여타의 과문집에 비해 소략(대체로 1-20페이지 내외)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4는 규장각 소장 『廣州府公都會科作』으로, 순조 연간에 경기도 광주에서 치러진 공도회 初試의 합격 답안을 모은 것이다. 부 6편, 시 6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작품을 정서한 뒤 맨 마지막 장에는 試官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간단한 자료이다. 이러한 과작집류 자료들은 수록 작품의 양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여타 기록에서 확인하기 힘든 공도회 등의 과시의 문제와 답안, 시관, 합격자 명단 및 성적 등 다양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4 규장각 소장 『광주
부공도회과작』

文體別 科文集 : 대체로 과문집은 특정 문체를 중심으로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 대부분이며, 여러 문체를 수록한 경우에도 특정 문체가 중심이 된다. 특히 이른바 科文六體라고 하는 科詩, 科賦, 科表, 科策, 四書疑, 五經義를 수록한 과문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문체는 조선 후기 과시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篡銘頌⁵⁸⁾이나 論 정도를 제외하면 특정 과문선집의 말미에 부록처럼 끼어들어가 있다. 『임현공령』의 경우처럼 특정 목적에 의해 다양한 문체의 과문을 한데 모아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문체별 과문집은 각각 별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문집 중에서 특히 가치가 있는 것은 시험 및 작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과문집들이다. 기실 상당수의 과문집 자료들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들을, 때로는 작자마저도 명기하지 않은 채 실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과거 대비를 위한 습작을 모은 것들도 있고, 어디에선가 베껴 온

58) 조선 후기 과시에서 잡명송의 출제 비율에 대한 논의는 김광년, 「조선 과시의 篡銘頌 연구」, 『한문 고전연구』 4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에서 다루었다.

자료를 출처 없이 모아둔 것들도 있다.

언제 어느 시험에서 누가 어떤 답안을 작성하여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 정보가 확실한 과문은 그것이 실제 시험에 제출된 것임을 확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해당 시험의 문제 및 답안 자료의 발굴에 다름 아니다. 즉 실제 시험에 제출된 시권 이외에도 과시의 문제와 답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가 명시된 과문집은 그렇지 않은 과문집에 비해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문집에 과문을 남긴 문인들 중 상당수가 문집을 남기지 못하여 역사에서 잊혀진 인물들인바, 관련 정보가 명확한 과문집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문인을 발굴해 내고 조선 시대 문학과 문화의 실상에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개인 소장 필사본『雁塔』. 9.4cm×11.5cm

한 가지 첨언하면, 문체별 과문집 중에는 손바닥 만한 크기의 袖珍本 도서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 개인 소장의 『안탑』(그림 5)이 그 사례 중 하나로, 옆의 볼펜과 비교해 보면 그 크기가 충분히 짐작된다. 이러한 수진본 과문집들은 대개 科場에서의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시대의 과장은 오늘날의 시험장처럼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가 아니라 “무질서가 遺風”⁵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정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接 단위의 공동 제술 역시 조선 후기에는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들 수진본 과문집들은 과거 시험장 안에서 답안 작성에 직접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습작 과문집 : 특별한 체계도 없고 작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문집은 습작 과문집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문집 중에서는 제목에 ‘私’를 내세운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경우는 그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정 과문집이 습작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명확히 판명하는 일은 과문집 자료의 집적 및 목록화, 디지털화 작업이 상당 수준으로 진척되어 작품의 주제와 내용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재로서는 연구의 전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9) 이는 白凡 金九의 증언이다. 金九, 『白凡逸志』 상권, 「우리집과 내 어린 적」 참조.

지면 관계상 위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과문집을 일일이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과문집 중에서 시험 및 작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科表』(古朝26-10, 그림 6)는 順菴 安鼎福家 舊藏 도서로, 일제 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 구입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게 된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과표들은 1712년(숙종 38)부터 1738년(영조 14)까지 다양한 과시에서 제출되었던 과표 작품들을 수록하였으며, 작자와 시험 일시, 종류, 성적 등이 제목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높은 성적을 받은 것들로, 답안 작성자가 최종 합격한 것들이 많다.⁶⁰⁾ 다소 번거롭지만 이 책에 수록된 작품의 전체 목록 및 관련 정보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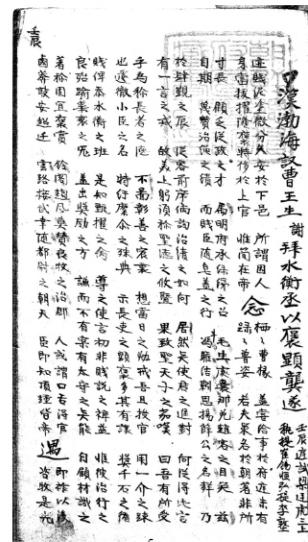


그림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표』

연번	유형	제목	작자	시험일시	시험종류	성적
1	謝	漢渤海設曹王生謝拜水衡丞以褒顯襲遂	梁廷虎	1712(숙종 38)	庭試	三上
2	謝	漢渤海設曹王生謝拜水衡丞以褒顯襲遂	李眞伋	1712(숙종 38)	庭試	三中
3	賀	本朝群臣賀命求高麗遠孫賜名循禮爲崇義殿副使以奉其祀置教官以教其子弟	尹淳	1712(숙종 38)	九日製	三中
4	謝	周諸侯謝克商巡狩式序在位歌時邁詩	李喜春	1712(숙종 38)	黃柑製	三中
5	請	宋張栻請信任絕一己之偏好惡公天下之見	安絢	1713(숙종 39)	三日製	三中
6	請	皇明中書舍人陳龍正請勿憂餉勿憂兵勿憂將而憂輔臣	金光運	1713(숙종 39)	九日製	三中
7	請	宋監察御史裏行程願請張載明州推勘之命以盡朝廷待士之道	睦天任	1713(숙종 39)	增廣試 初試	三上

60) 그림 6에 작품이 실린 梁廷虎(1683-?)는 해당 시험에서 장원급제(19명 중 1등)하였다.

8	賀	魯群臣賀以夾谷之倉孔子誅齊淄樂歸鄭汶陽龜陰之田	尹光天	1713(숙종 39)	增廣試 初試	三中
9	謝	漢丞相蕭何謝許以設壇具禮拜韓信爲大將	李重協	1713(숙종 39)	增廣試 會試	三中
10	請	宋王縉請飭躬修省之意詔大臣以燮理之事	南世雲	1713(숙종 39)	增廣試 殿試	三上
11	賀	漢朝群臣賀卽日車駕西都關中	李匡輔	1714(숙종 40)	三日製	三中
12	謝	宋舉人蘇轍謝不許宰相考官請黜之言仍置第中等	宋眞明	1714(숙종 40)	黃柑製	三下
13	賀	唐朝群臣賀天下財賦皆歸左藏	鄭必寧	1714(숙종 40)	九日製	三下
14	謝	齊田穰苴謝與諸大夫郊迎勞使尊爲大司馬	閔景孝	1714(숙종 40)	增廣試 初試	三中
15	謝	周周章謝仍封於吳仲封於故夏墟列諸侯	趙觀彬	1714(숙종 40)	增廣試 初試	三中
16	請	齊管仲請勿倍曹沫之約棄信於諸侯	李廷燁	1714(숙종 40)	增廣試 會試	
17	請	宋翰林學士蘇軾請於至日法先王奉若天道用之於國與身	李廷燁	1714(숙종 40)	增廣試 殿試	三中
18	請	宋翰林學士歐陽脩請勿除包拯三司使以全其名節	閔晚起	1715(숙종 41)	式年試 初試	
19	請	齊晏嬰請勿以彗星爲懼	睦天運	1715(숙종 41)	式年試 初試	三中
20	請	宋御史裏行程願請勿謂堯舜之事朕何敢當以爲天下之福	姜樸	1715(숙종 41)	三日製	三中
21	乞	宋知亳州曾鞏乞暫至京師迎侍老母赴任	南壽彥	1715(숙종 41)	九日製	三中
22	賀	唐朝群臣賀以閏月定四時成歲	成德章	1715(숙종 41)	黃柑製	三中
23	請	漢鄼食其請急進兵收取榮陽據敖倉之粟塞成皋之險	朴弼夔	1716(숙종 42)	三日製	三中
24	賀	周朝群臣賀反風禾起歲則大熟	尹光天	1716(숙종 42)	九日製	
25	請	漢建信侯劉敬請徙齊田楚昭屈景及名家豪傑於關中	柳後明	1716(숙종 42)	黃柑製	三中
26	請	魯南宮說請資孔子車馬同往周觀先王之遺制		1717(숙종 43)	式年試 初試	三下
27	謝	齊孟子謝就見諭以前日願見而不可得不識可以繼此而得見	李苓	1717(숙종 43)	式年試 初試	三中
28	謝	楚宋玉謝諭以善哉論事使之更進庶人之風	李巨源	1717(숙종 43)	庭試	三中
29	辭	漢周勃辭右丞相	權世恒	1717(숙종 43)	重試	三上
30	辭	漢周勃辭右丞相	金壇	1717(숙종 43)	重試	三上
31	謝	漢待詔東方朔謝復爲仲郎賜帛百匹	尹筵	1717(숙종 43)	黃柑製	三上
32	謝	唐裴復謝詔其父曰父忠子孝終喪心且爲翰林	洪鉉輔	1718(숙종 44)	庭試	三中

33	賀	秦群臣賀作誓告以群言之首悔不能詢效黃髮	李紘	1718(숙종 44)	別試 初試	三上
34	請	宋范祖禹請以仁宗伯玉不如史魚之言爲法昭示所好以慰重望	趙景彬	1718(숙종 44)	別試 初試	三上
35	謝	趙公子成謝不治不從變服令之罪親臨面診請以無怠鄙醜之意	金民澤	1718(숙종 44)	黃柑製	三中
36	賀	宋朝群臣賀得商頌十二篇於周大師以祀先王	南壽彥	1719(숙종 45)	謁聖試	三中
37	賀	周朝群臣賀旣伐于崇作邑于豐	李宇夏	1719(숙종 45)	增廣試 初試	三中
38	請	宋王朝請覽所進少時占書勿罪問占朝土必以此爲罪并臣付獄表	朴師游	1719(숙종 45)	增廣試 初試	三中
39	謝	趙尹鐸謝賞以免難之賞	柳謙明	1719(숙종 45)	增廣試 會試	三下
40	謝	漢韓信謝諭以丞相數言將軍何以教寡人計策	鄭亨益	1719(숙종 45)	增廣試 殿試	三中
41	謝	漢韓信謝諭以丞相數言將軍何以教寡人計策	權贊	1719(숙종 45)	增廣試 殿試	三下
42	請	宋歐陽脩請密諭狄青劉滬使過將主事者不懈大將之威不挫	吳光運	1719(숙종 45)	九日製	三中
43	賀	齊朝群臣賀召大師作君臣相說之樂	柳益垕	1720(숙종 46)	式年試 初試	三中
44	謝	周申伯謝錫爾介圭南土是保	朴壽潤	1720(숙종 46)	式年試 初試	三上
45	謝	漢徹侯諸將謝置酒洛陽南宮仍問楚漢得失	尹鑠	1720(숙종 46)	館試	三下
46	請	宋蘇軾請御試勿取阿諛順旨者以示陛下不諱直節之意	尹心衡	1721(경종 1)	庭試	三中
47	請	宋蘇軾請御試勿取阿諛順旨者以示陛下不諱直節之意	慎無逸	1721(경종 1)	庭試	三下
48	請	宋蘇軾請御試勿取阿諛順旨者以示陛下不諱直節之意	俞彥通	1721(경종 1)	庭試	三下
49	請	宋歐陽脩請錄尹洙遺忠特賜其子一官以免饑寒	沈尙吉	1721(경종 1)	增廣試 初試	三上
50	謝	皇明農民等謝於午朝諭侍臣以天氣向炎正農夫耕耘之時仍誦聶夷中詩	睦大敬	1721(경종 1)	增廣試 初試	
51	謝	漢王褒謝以辭賦賢於倡優博奕遠矣擢爲諫議大夫	權贊	1721(경종 1)	增廣試 會試	三中
52	謝	虞臯陶謝以俾予從欲以治四方風動惟乃之休		1721(경종 1)	九日製	三中
53	請	宋蘇軾請鮮鸞秣馬以須東方之明徐行於九軌之道	趙景命	1722(경종 2)	庭試	三上
54	請	宋蘇軾請鮮鸞秣馬以須東方之明徐行於九軌之道	李匡德	1722(경종 2)	庭試	三中
55	賀	宋朝群臣賀以孫奭所上無逸圖施于講閣又詔蔡襄寫無逸篇于閣屏表	成德潤	1722(경종 2)	謁聖試	三上
56	賀	宋朝群臣賀以孫奭所上無逸圖施于講閣又詔蔡襄寫無逸篇于閣屏表	韓師得	1722(경종 2)	謁聖試	三中
57	賀	漢朝群臣賀諭以吾治天下亦欲以柔道行之	林光弼	1722(경종 2)	增廣試 初試	이하
58	謝	漢衛將軍張安世謝憫其安世年老復徵延壽爲左曹太僕	洪景輔	1722(경종 2)	增廣試 初試	二下

59	謝	晋魏絳謝賜鄭賂樂之半諭以如樂之和無所不諧請與子樂之	任珽	1722(경종 2)	黃柑製	三中
60	請	楚伍舉請勿以土木之崇高形鏤爲美法先君除亂克敵無惡諸侯	李度遠	1723(경종 3)	增廣試 會試	三上
61	請	楚伍舉請勿以土木之崇高形鏤爲美法先君除亂克敵無惡諸侯	朴師洙	1723(경종 3)	增廣試 會試	三中
62	謝	宋知陝州冠準謝不治生日造山棚之罪諭以止是駿耳	朴師游	1723(경종 3)	討逆庭試	三上
63	謝	宋知陹州冠準謝不治生日造山棚之罪諭以止是駿耳	朴胤東	1723(경종 3)	討逆庭試	三下
64	乞	越范蠡乞從會稽之罰	金尙星	1723(경종 3)	庭試	三上
65	賀	蜀漢群臣賀關羽威震華夏曹操議徙許都	韓德良	1723(경종 3)	式年試 初試	三中
66	請	宋歐陽脩請禁無名詩傷毀近臣委任三司使堯臣辦事	金夏潤	1723(경종 3)	式年試 初試	三中
67	賀	周朝群臣賀營洛邑爲東都以朝諸侯	宋國經	1723(경종 3)	館試	三下
68	請	周召公奭請用顧于民巖	鄭亨復	1725(영조 1)	增廣試 初試	三中
69	賀	漢朝群臣賀立太子守關中立宗廟社稷	洪重澤	1725(영조 1)	增廣試 初試	三中
70	請	宋崇政殿說書鄭頤請皇帝在宮中言動服食使經筵官知之	閔應洙	1725(영조 1)	增廣試 會試	차상
71	進	宋胡安國進春秋傳	鄭彥燮	1725(영조 1)	增廣試 殿試	三中
72	賀	殷朝群臣賀伐鬼方三年克之小人勿用	任守迪	1725(영조 1)	九日製	三中
73	賀	宋朝群臣賀唐季百年之後始見立儲之禮	李萬營	1725(영조 1)	庭試 初試	三中
74	謝	宋門下平章事杜衍謝諭諫官以助我多矣	柳運	1726(영조 2)	三日製	三中
75	謝	宋文天祥謝御集英殿賜進士出身	金致暉	1726(영조 2)	謁聖試	三中
76	謝	周朝使臣等謝於燕饗之際四牡詩序其情而閔其勞	慶魯	1726(영조 2)	式年試 初試	三下
77	賀	本朝群臣賀僞辛攻遼之日仗義回軍風聲著聞於天下	金泰臣	1726(영조 2)	式年試 初試	三上
78	賀	本朝群臣賀命世子八歲入學而至成均館以仗服行束修之禮遂爲定制	南有常	1727(영조 3)	三日製	三中
79	賀	漢朝群臣賀周亞夫至河南得劇孟	吳遂采	1727(영조 3)	增廣試 初試	三中
80	進	魯詩人進在泮獻功頌	李重庚	1727(영조 3)	增廣試 初試	三中
81	謝	高句麗執事侍郎祿眞謝診角干以直言如此何喜如焉仍使儲君知之	李載厚	1727(영조 3)	增廣試 會試	三中
82	謝	宋工部侍郎李及謝諭以清慎未嘗妄有所舉其言可信特以所薦人張錫除監察御史	閔瑗	1727(영조 3)	增廣試 殿試	
83	請	宋給事中范祖禹上宣仁太后請以四條擇妃	鄭道隆	1727(영조 3)	九日製	三中
84	賀	本朝群臣賀於至日下備忘記取復卦之義益加修省儆戒群下	宋墳	1727(영조 3)	黃柑製	三中
85	謝	漢右將軍諸葛亮謝久自挹損非所以光揚休烈還拜右丞相	李匡贊	1728(영조 4)	三日製	
86	請	周周公請勿誤庶獄慎克詰戎兵以觀文王之耿光以揚武王之大烈	安復駿	1728(영조 4)	別試 殿試	
87	請	唐陸贊請勿罪姜公輔嘉忤志之忠祐逆耳之吝平積憤之氣庶臻至理	林光弼	1724(경종 4)	月課	三上
88	謝	周微子啓謝命尹茲東及弘迺烈祖律乃有民永綏厥位	李河述	1729(영조 5)	式年試 生劃科	三中
89	謝	本朝掌執等謝書賜新羅執事侍郎祿眞戒上大等金忠恭之言以示飭勵之意表	邊翼老	1729(영조 5)	九日製	三下
90	賀	虞朝群臣賀在璿璣玉衡以齊七政	李東煥	1729(영조 5)	黃柑製	三中

91	請	本朝羣臣請固守去八月十八日下教之意勿忘勿懈使大小臣僚咸歸寅協蕩平之治以百餘年謬習洗滌於今日表	趙顯命	1730(영조 6)	應製	三中
92	進	本朝纂修廳進先朝寶鑑仍請克勤克敬繼述先王之至德休揚先王之洪烈表	李時熙	1730(영조 6)	庭試	三上
93	謝	虞阜陶謝聽賡載歌拜曰愈往欽哉	黃尚老	1730(영조 6)	三日製	三中
94	請	皇明禮部尙書馮琦請勿憚一日之發憤以成一世之業立萬世之名	許迨	1730(영조 6)	黃柑製	三下 一
95	賀	商群臣賀三誥耿民終遷新邑綏爰有衆	李濱	1730(영조 6)	月課	三上
96	賀	周群臣賀二王之後來助祭詩人作振鶩之詩	崔龍賢	1731(영조 7)	三日製	三上
97	賀	周群臣賀二王之後來助祭詩人作振鶩之詩	尹志泰	1731(영조 7)	三日製	三下
98	請	皇明宋濂請行孟子養心之訓使心清而身恭	韓翼ழ	1731(영조 7)	黃柑製	三中
99	請	皇明宋濂請行孟子養心之訓使心清而身恭	李存中	1731(영조 7)	黃柑製	三下
100	賀	唐群臣賀用魏徵仁義之言斗米三錢	柳萬樞	1732(영조 8)	九日製	三中
101	賀	宋太學生賀五賢從祀	鄭光益	1733(영조 9)	視學別科	三下
102	謝	唐李光弼謝爲太尉統八路行營	李錫杓	1733(영조 9)	謁聖試	三中
103	謝	唐李光弼謝爲太尉統八路行營	金尚迪	1733(영조 9)	謁聖試	三下
104	謝	尙傳說謝以形旁求于天下厥象惟肖	尹擇挺	1733(영조 9)	式年試 初試	三中
105	賀	漢朝群臣賀親行勞軍	朴昌	1733(영조 9)	式年試 殿試	三中
106	謝	周周公謝於迎歸之後仍命東征	李彥世	1733(영조 9)	九日製	三中
107	請	周召虎請矢其文德治此四國	金尚壽	1734(영조 10)	庭試	三上
108	請	周召虎請矢其文德治此四國	金箕錫	1734(영조 10)	庭試	三中
109	請	本朝群臣請修明大典復列祖之舊章培養太學正多士之趨向	李命坤	1734(영조 10)	春塘臺試	三中
110	請	本朝群臣請修明大典復列祖之舊章培養太學正多士之趨向	權燉	1734(영조 10)	春塘臺試	三下
111	請	梁孟子請施仁政於民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	閔志?	1735(영조 11)	增廣試 初試	三上
112	請	宋直寶文閣朱熹請念歲月逾邁日新盛德使臣忘其夙昔之憂	李成中	1735(영조 11)	增廣試 初試	三中
113	請	宋濂甫請鑑醫人治病之術彭祖觀井之法勿輕用兵西夏	尹志泰	1735(영조 11)	增廣試 會試	三中
114	請	宋濂甫請鑑醫人治病之術彭祖觀井之法勿輕用兵西夏	吳遂采	1735(영조 11)	增廣試 會試	三下
115	賀	周朝群臣賀周公爲政於國中召公宣布於諸侯化成於內而南方諸侯莫不從化	李奎采	1736(영조 12)	三日製	三中
116	賀	漢朝群臣賀成長樂宮	曹夏望	1736(영조 12)	庭試	三上
117	賀	漢朝群臣賀成長樂宮	南惠老	1736(영조 12)	庭試	三中
118	進	皇明太學士蔣冕進和御賜老牛詩	李匡誼	1736(영조 12)	黃柑製	三中
119	謝	秦趙藺相如謝不治叱左右之罪爲一擊缶	李命熙	1735(영조 11)	增廣試 初試	
120	謝	周朝鮮民人等謝封箕子於本國	朴敬行	1736(영조 12)	別試 初試	三中
121	賀	漢群臣賀以蕭何爲相韓信爲將還定三秦	尹尚喜	1736(영조 12)	別試 初試	三中

122	請	齊孟子請監靈臺詩湯誓之辭與民同樂	金?剛	1734(영조 10)	式年試	三下
123	賀	商群臣賀東征西夷怨南征北狄怨曰奚獨後予	金?	1734(영조 10)	미상	
124	謝	周周公謝諭以建爾元子俾侯于魯大啓爾字爲周室輔	洪啓沃	1735(영조 11)	式年試	三下
125	進	本朝耽羅守臣進貢柑橘	吳命修	1738(영조 14)	黃柑製	三中
126	賀	漢群臣賀項伯以身翼蔽	白尙鼎	미상	泮旬	二下
127	賀	皇明群臣賀修葺萬壽山廣寒殿勒石記皇祖 <small>소</small> 授大訓	安允行	1738(영조 14)	三日製	三中
128	賀	皇明群臣賀修葺萬壽山廣寒殿勒石記皇祖 <small>소</small> 授大訓	鄭東游	1738(영조 14)	三日製	三下
129	制	擬宋拜富弼同平章事制	朴大厚	1728(영조 4)	庭試	三上
130	制	擬宋拜富弼同平章事制	任口	1728(영조 4)	庭試	三中
131	詔	十漸付史官詔	沈命說	1729(영조 5)	4월 別製	

위 목록을 살펴 보면, 이 『과표』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져 있지 않았던 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우수 답안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시기 과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안정복의 집안에서 대대로 유전되던 것으로 이 집안 구성원들의 과거 대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순암가 구장 과문집 외에도, 각 문중에는 문중별로 流傳되어 온 과문집 등의 과시 자료들이 매우 풍부하게 남아 있어 별도의 관심을 요한다.⁶¹⁾ 이를 문중 소장 과문집은 개별 문중에서 과거 대비를 위한 일종의 秘法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특정 문중의 과문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 지역 문중 자료를 기탁받아 수장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자료 목록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역시 호남 지역의 여러 문중에서 다양한 문헌 자료를 기탁받아 조사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수의 과문집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²⁾

그 한 가지 사례로,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탁 소장하고 있는 대구 慶州崔氏 百弗庵 종중 기탁 고문헌 중에서 과문집 자료의 목록을 일부만 제

연번	분류	서명	자료ID	서지사항	비고
1	과부집	春暖	515429	필사본 1冊 ; 18.5×12.4cm	
2	과부집	輒中	515428	필사본 1冊 ; 18.2×10.9cm	

61)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233-238에서 안정복 가 구장 과시 자료에 대해 일부 다루었다.

62) 다만 자료 목록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실상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3	과부집	執柯	515427	필사본 1冊 ; 15.2×11.1cm
4	오경의집	笠蹄	515421	필사본 1冊 ; 24.6×22.0cm
5	오경의집	笠蹄	515420	필사본 1冊 ; 10.1×19.5cm
6	오경의집	義抄	515417	필사본 1冊 ; 15.7×19.7cm
7	과부집	遇竹	515414	필사본 1冊 ; 14.0×14.0cm
8	과부집	如意	515413	필사본 1冊 ; 17.6×20.9cm
9	과시집	抑陰扶陽	515412	필사본 1冊 ; 21.6×13.7cm
10	과부집	收之桑榆	515409	필사본 1冊 ; 21.5×20.0cm
11	과부집	水藍	515408	필사본 1冊 ; 18.5×12.0cm
12	오경의집	席珍	515406	필사본 1冊 ; 10.1×19.3cm
13	과부집	獨覽	515395	필사본 1冊 ; 16.0×8.5cm
14	과부집	龜文	515394	필사본 1冊 ; 22.6×20.4cm
15	과부집	柯則	515390	필사본 1冊 ; 20.3×11.4cm
16	과부집	家稿	515389	필사본 1冊 ; 16.5×11.5cm

시해 본다.⁶³⁾

위 목록에서 백불암 종가에서는 특히 오경의와 과부의 학습에 많은 공을 들였음이 확인된다. 왜 이들 과문체에 대한 학습에 유의하였는가는 가문의 家學, 가문 인물들의 학문적 성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아직까지 특정 가문의 과문 학습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진 바 없는데, 향후 이 방면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2) 과규집

과규집은 과시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규정 이외에, 과문 창작을 위한 지침서 혹은 참고서를 가리킨다.

한 종의 도서 전체가 오롯이 과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단행 저술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망설여지지만, 과문 창작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과문의 套式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고 있는 점에서 별도의 분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형식적 제약이 비교적 강한 科表 등의 駢儷文 작법에 대한 논의를 다룬 과규집이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⁶⁴⁾ 이는 과표가 對偶와 平仄, 篆法 등의 형식적 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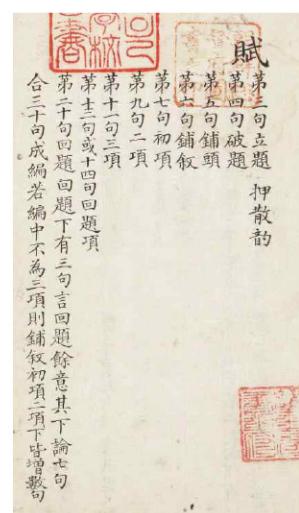


그림 7 규장각 소장『과문 규식』

63) 大巖 崔東菴(1586-1664)의 가문으로, 11,500여 건에 이르는 자료를 기탁하였다.

64) 규장각 소장의『科儷規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駢儷華藻』, 연세대 소장의『表套』 등을 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과표의 형식적 특징과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94-114면 및 이상욱, 「조선 후기 과표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학』 53집, 대동한문학회, 2017 등을 참조.

을 엄격히 요구하고,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의 故事에 정통해야 하는 등 창작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문체였던 점에 기인한다.

그밖에 과문집의 권두 혹은 말미에 참고 자료처럼 과규를 정리한 내용이 수록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⁶⁵⁾ 이들 과규집의 내용은 대체로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과문의 투식이 여러 사람에 의해 다듬어져 오면서 과규집에 수록된 내용으로 고착화해 갔음을 짐작하게 해준다.⁶⁶⁾

과규집의 사례로, 규장각 소장 『科文規式』을 들어 본다. 본문이 전체 11페이지에 불과한 이 책은 賦, 表, 詔, 制, 策, 箴, 銘, 頌, 論, 詩 등 총 10개의 과문체에 대해 그 창작 규식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이중 科賦의 투식을 설명한 부분을 예로 들어 본다(그림 7).

賦

제3구⁶⁷⁾는 立題이며 散韵⁶⁸⁾으로 압운한다.

제4구는 破題이다.

제5구는 鋪頭이다.

제6구는 鋪叙이다.

제7구는 初項이다.

제9구는 二項이다.

제11구는 三項이다.

제13구, 혹 제14구는 回題項이다.

제20구는 回題이다. 회제 아래에 3구를 두어 회제의 남은 뜻을 말하고, 그 아래 7구에서 논한다.

도합 30구로 작품을 완성한다. 만약 작품 내에서 3항이 되지 않는다면 포서, 초항, 2항 아래는 모두 몇 구절을 더한다.⁶⁹⁾

65)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策文準的』인데, 과책집의 권두에 책문의 투식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일찍이 여러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은 바 있다. 예컨대 최식, 「책문의 특징과 글쓰기 : 『책문준적』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등이 있다.

66)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규집 및 과문집의 제작 시기를 비롯한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이 논문에서詳論하지 못한다.

67) 과문에서 '구'는 한 聯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 의미의 '句'와는 다르다.

68) 散韻은 한 편의 작품 안에서 여러 개의 운자를 사용해 압운하는 것으로, 운자가 바뀔 때에는 한 聲의 出句(대구의 앞 구절)와 對句(대구의 뒷 구절) 모두 압운을 하며, 그 다음 연에서 換韻한다. (梁慶遇, 『霽湖集』 권9, 「詩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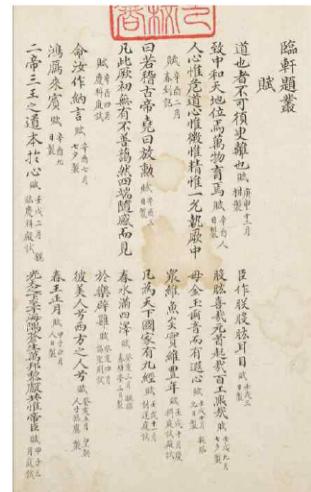
69) 『과문규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第三句, 立題, 押散韵. 第四句, 破題. 第五句, 鋪頭. 第六句, 鋪叙. 第七句, 初項. 第九句, 二項. 第十一句, 三項. 第十三句, 或十四句, 回題項. 第

이 인용문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科賦의 구성 요소들을 언급하며 전체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짤막하게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회제, 초항, 이항 등등의 용어들은 다른 과문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것 이어서, 어느 정도 과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설명만으로도 과부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투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형태로 정착되어 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규집의 투식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문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수집하여 정리하며, 이를 실제 과문 작품과 연관지어 해석한다면 과문체 성립의 과정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科題集

과제집은 과시 문제만을 모아 놓은 자료를 가리킨다.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臨軒題叢』(그림 8)⁷⁰⁾ 외에도 각급 기관 등에는 과시 문제만을 별도로 수록해 놓은 과제집이 여러 종 현전한다. 편찬 목적이 비교적 뚜렷한 『임현제총』과는 달리, 민간에 전해지던 과제집은 과시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특정 시기의 출제 경향 등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과제집 중에는 큰 규모의 과문집을 편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있는바, 이러한 성격의 자료가 존재하는 것 역시 과제 그림 8 규장각 소장 『임현 제총』



4) 과문을 수록한 개인 문집

한편, 개인 문집에도 과시 문제와 답안 등 다양한 과문 자료들이 수록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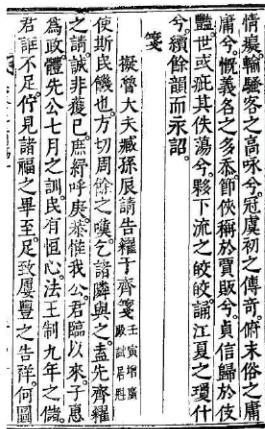
二十句, 回題. 回題下有三句, 言回題餘意. 其下論七句. 合三十句成編. 若編中不爲三項, 則鋪敘·初項·二項下, 皆增數句.”

70) 『임현제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참조. 이 책은 정서 상태 등으로 볼 때 御覽用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때로는 科體 등으로 문체를 분류하여 과문을 집중적으로 수록하는 경우도 있고, 과표 등은 다른 변례문과 함께 묶여 수록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 문집에서 과체를 별도로 편차하는 것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었으며, 특정 작가의 과문이 문집에 수록된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이는 과문 수련을 떳떳하게 여기지 못했던 조선 시대의 풍습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⁷¹⁾

조선 후기 과문의 名手로 이름이 알려진 문인들 중에 息庵 金錫胄(1634-1684)는 과체를 문집에 별도로 편차해 두지는 않았으나, 문집 『息庵遺稿』의 別稿에 賦 30편, 箋 1편, 殿策 4편, 執策 7편 등 총 42편에 이르는 과문을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다. 이정도의 수량은 조선 시대 문집 중에서도 드문 사례이다. 이중 실제 과장에서 제출되었던 답안에는 시험 종류와 시험 시행 연도, 시험 결과 등을 제목 아래에 小註로 병기해 놓아 습작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았다. 그림 8은 『식암유고별고』에 수록된 그의 箖 작품인 그림 9 『식암유고별고』 「擬魯大夫臧孫辰請告蘿于齊箖」인데, 제목 아래 소주로 “임인년 증광시 전시에서 수석을 차지함[壬寅增廣殿試居魁]”이라고 밝혀져 있어 이 작품이 1662년(현종 3 임인)에 치러진 증광시 전시에 제출된 답안이며, 이 답안으로 장원 급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⁷²⁾

『식암유고』 별고에 실려 있는 과문의 목록을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번	문체	제목	비고
----	----	----	----

71) 일례로 조선 중기의 이른바 ‘漢文四大家’의 일원이었던 象村 申欽(1566-1628)은 글을 지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과문의 어투가 섞여 나온다면 스스로 한탄한 적이 있다. 李宜顯, 『陶谷集』 권28, 「陶峽叢說」, 한국문집총간 181집, 455면, “象村文才軼倫, 年未十歲, 已大成. 早孤, 育於外家, 卽宋麒壽家也. 宋家專尚科業, 常使習作表策, 不製他文. 以此象村弱冠登第, 而所作表策, 已至累數百首, 爲場屋老儒. 自中歲, 有意古文, 而文氣斲傷, 爲文自不覺科文語錯入, 每擲筆自歎.”

72) 이러한 사실은 규장각에 소장된 『今上三年壬寅孝宗大王祔廟慈懿大王大妃尊崇孝肅王大妃尊崇王妃冊禮元子誕生合五慶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의 내용을 통해서도 상호 검증이 된다.

1		祀喬山賦	임진년(1652, 효종 3)
2		詩能窮人賦	을미년(1655, 효종 6) 學製 居首
3		詩賦	學製 居首
4		至樂無聲賦	병신년(1656, 효종 7) 學製 居首
5		敬如磨鏡賦	정유년(1657, 효종 8)
6		桂折秋風前賦	신묘년(1651, 효종 1)
7		採薇歌賦	갑오년(1654, 효종 5)
8		凌波奏樂賦	
9		對床談天地賦	
10		操南音賦	
11		沛宮歌大風賦	
12		醉遊吳公臺賦	
13		黃龍負舟賦	
14		越江贈詩賦	병신년(1656, 효종 7)
15		玉環殉墓賦	정유년(1657, 효종 8)
16		南屏對雪賦	
17		聞歌退師賦	
18		書報燕王賦	같은 해 監試 會試 居魁
19		祝舌賦	
20		老驥伏櫪賦	기해년(1659, 효종 10)
21		夢釣子陵湍賦	
22		解印間行賦	경자년(1660, 현종 1)
23		撞破玉斗賦	경자년(1660, 현종 1)
24		指水盆賦	
25		構木爲巢賦	
26		遺今分香賦	신축년(1661, 현종 2)
27		移書大夫種賦	
28		天高聽卑賦	
29		天地設位而易行于其中賦	임인년(1662, 효종 3) 增廣 會試
30		玉主報恩賦	경술년(1670, 효종 11)
31	箋	擬魯大夫臧孫辰請告糴于齊箋	임인년(1662, 효종 3) 增廣 殿試 居魁
32		自強	
33		幾微	
34		規模	
35		敬	
36		鴻雁	
37		慾	
38		師古	
39		逸	
40		老	
41		斷	
42		譏毀	

다. 과시 관련 역사 기록

각종 역사서나 공공 기록 등에는 과시에 대한 사항이 산재해 있는데, 과시 관련 역사 기록이란 이를 가리킨다. 그 분량이 상당히 많아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중 『승정원일기』와 『내각일력』 등 편년체 사서에 대해서만 아래에서 약술한다.

『승정원일기』에는 과시의 시행에 대한 사실을 포함하여, 방목으로 정리되지 않은 각종 별시(주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들)의 시행 사실과 성적 우수자 명단 등이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성균관 유생의 과시는 별도의 방목을 작성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승정원일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성록』 등에도 관련 사실이 기록되기는 하지만 기록의 상세함에 있어서는 『승정원일기』가 단연 여타의 기록을 압도한다.⁷³⁾

『내각일력』(그림 9)에 수록된 과문 자료들의 경우 초계문신 課試에서 우등한 답안만을 골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주지하다시피 초계문신은 정조가 특별히 선발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키고 과시를 통해 시험하였던 제도였던바, 초계문신 과시에서 지어지는 과문 작품들은 당대 제일가는 젊은 문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창작했던, 과문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각일력』에는 초계문신 과시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초계문신 제도의 이해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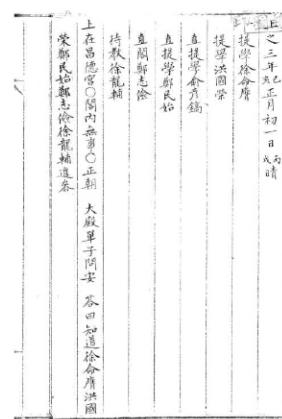


그림 10 규장각 소장 『내각일력』

4. 맷음말

기존의 과시 자료 분류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주로 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바, 필자는 여러 분류 방안을 검토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크게 ①과시 관련 공적 문헌, ②과문 및 과규집, ③과시 관련 역사 기록 등 3개의 대분류를 설정하고, 각각의 대분류에 하위 분류를 설정해 과시 자료를 분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분류를 기준으로 과

73) 이에 대해서는 김광년, 「조선 후기 과시 연구와 『승정원일기』의 활용」, 『동방한문학』 85집, 동방한문학회, 2020 참조.

74) 김광년, 「규장각의 1781년」, 『동양고전연구』 85집, 동양고전학회, 2021에서 『내각일력』을 통해 초계문신 과시의 시행 과정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시 자료의 경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현재 다수의 개인 연구자들 및 기관에서 과시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의 관심을 기다리는 과시 자료들은 山積해 있고 과시 자료의 조사 및 정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시 자료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 조선 시대 과시를 둘러싼 다양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 위상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参考文獻

〈원전〉

權仲德, 「試券」, 개인 소장.

『今上三年壬寅孝宗大王祔廟慈懿大王大妃尊崇孝肅王大妃尊崇王妃冊禮元子誕生合五慶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金九, 『白凡逸志』

金在昌 편, 『廣州府公都會科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梁慶遇, 『霽湖集』, 韓國文集叢刊 73집, 한국고전번역원.

李宜顯,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집, 한국고전번역원.

鄭萬朝, 『科舉及科文』,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科儻規式』,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科文規式』,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科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駢儻華藻』,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崇禎三甲寅慶科庭試文科榜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雁塔』, 개인 소장.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表套』, 연세대학교 소장본.

『經國大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http://db.history.go.kr/joseon/law.do>.”

『內閣日曆』, 규장각 원문정보 DB, “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NGK.” (텍스트 및 이미지)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텍스트) ; 규장각 원문 정보 DB, “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SJW#none.” (이미지)

『日省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list?itemId=IT&gubun=book>”(번역) ; 규장각 원문정보 DB, “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ILS”(원문 텍스트 및 이미지).

〈논저〉

- 김경·김광년, 「조선시대 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 사업의 개요와 전망, 『동아한학연구』 15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21, 263-292.
- 김광년, 「정조-고종 연간의 과문집 『임현공령』 연구」,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129-159.
- 김광년, 「조선 후기 과시 연구와 『승정원일기』의 활용」, 『동방한문학』 85집, 동방한문학회, 2020, 55-80.
- 김광년, 「규장각의 1781년」, 『동양고전연구』 85집, 동양고전학회, 2021, 255-284.
- 김광년, 「조선 과시의 篆銘頌 연구」, 『한문고전연구』 4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187-209.
- 김광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92집, 동양고전학회, 2023, 187-224.
- 김광년, 「규장각 소장 과시 자료의 현황과 그 특징」, 『한국문화』 107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4, 259-280.
-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3.
-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205-243.
-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집,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147-189.
- 박현순, 「조선후기 科文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 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83집, 한국한문학회, 2021, 77-116.
-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재 상황」, 『동양고전연구』 80집, 동양고전학회, 2020, 9-65.
- 심경호 외, 「역주와 해설 조선 과시 법전」, 일다, 2023.
- 심경호 외, 「역주 과거급과문」, 일다, 2023.
- 원창애 외,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낙폭지의 재활용 문화」, 『민족문화연구』 97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187-210.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 이상욱, 「조선 후기 과표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학』 53집, 대동한문학회, 2017, 159-193.
- 최식, 「책문의 특징과 글쓰기 : 『책문준적』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381-404.



발표
3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시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이효종

(국립진주박물관)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시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 전시자료로서 <시권>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이효종(국립진주박물관)

1. 머리말

2.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에 나타난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시권
3.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의 전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방안 제시
4. 맺음말

1. 머리말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이 시행한 이래 전통시대의 관원 선발 제도 중 가장 일 반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과거로 선발된 관원들은 다른 방식으로 관직에 진출한 이들을 압도해 핵심 요직과 최고위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또 과거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합격 여부에 따라 본인의 출세뿐만 아니라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과거제도는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과거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과거제 자체에 대한 연구, 과거 합격자에 통계적 연구와 그 사회사적 의미, 개별 과거 합격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시험지의 내용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⁷⁵⁾ 이런 연구에 힘입어, 발표자는 과거제

75) 과거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준호, 『이조 생원·진사시의 연구』, 국회도서관, 1970.; Edward W. Wagner,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Occasional Papers on Korea 1, June 1974(이훈상·손숙경 역, 「조선시대 출세의 사다리」,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Edward W. Wagner, "The Civil Examination Process as Social Leaven: The Case of the Northern Provinces in Yi Dynasty Korea", Korea Journal vol. 17:1, Jan 1977(이훈상·손숙경 역, 「사회 완충제로서의 과거: 서북지역의 사례 연구」,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송준호, 「과거제를 통해서 본 중국과 한국」, 『과거』, 일조각, 1981(『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송준호, 「조선 후기의 과거제도」, 『국사관논총』 63, 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박현순, 「과거 급제를 위한 고군 분투」,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원장애, 「조선후기 문과 급제에 이르는 다양한 길」, 『조선사람들의 일상, 미시적 조명』, 2023.; 윤진영, 「과거 관련 회화」, 『조선사람들의 일상, 미시적 조명』, 2023.

도에 대한 많은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었고 이해를 심화시켰다.

한편, 1980년대 이래 연구기관이나 박물관에서 사회사 자료를 수집, 보관하면서, 과거시험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소장한 문중에서 기증받거나 기탁을 받았다. 이 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 박물관 전시기획자들이 2000년대부터 과거제도에 관한 자료를 상설전시에 반영하거나 특별전시에 부분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시권〉을 주제로 본격적으로 특별전시를 개최하였다.⁷⁶⁾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특별전 〈시권 -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는 시권의 형식과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과거제도와 그 운영까지 조명하여 과거제도와 시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기념비적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시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책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⁷⁷⁾

이 발표에서는 과거제 및 시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시권에 관한 전시로 가장 뛰어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시도록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에 표출된 문제의식과 전시연출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특별전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에 대한 전시를 개최하게 된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체제와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대중적인 전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에 나타난 조선시대 과거와 시권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고 그와 함께 도록을 제작하였다. 당시 특별 전시를 직접 보지 않았

76) 과거제 및 시권에 관한 전시도록은 다수가 있으나, 이 글에서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 편, 『사농공상의 나라,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2010.; 소수박물관 편, 『과거, 몸을 일으켜 이름을 떨치다』, 소수박물관, 20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편, 『과거를 묻고 현재를 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77) 시권에 관한 연구자료 중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동석, 「조선시대 문반 시권의 형태와 작성」,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안장리, 「제산 김성탁의 시권을 통해 본 사림의 소명」,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김태완, 『책문, 조선의 인문 토론 - 꽃꽃한 선비의 시대정신을 말하다』, 현자의 마을, 2017.; 김학수 등, 『선비의 답안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안소연, 『조선시대 책문·대책 연구』, 역사문화, 2019.;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이담북스, 2020.

기애, 전시 내용 및 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도록에 전시실 내부 장면에 관한 사진을 수록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당시 국립 박물관의 전시를 포함한 대다수 전시가 전시품을 중심으로 설명패널과 설명카드를 활용하여 전시하였기 때문에, 이 전시 또한 〈시권〉을 중심으로 전시품을 연출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도록에 전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기에, 이 발표에서는 전시도록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장 최진덕은 “장서각에 소장된 수백 점의 시권에는 나라의 물음에 현답을 제시하여 관료가 되고자 했던 이들의 진지함과 진정성이 묻어 있고, 한 글자 한 구절까지 고심을 다해 적었던 글줄에서는 경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치열함을 느낄 수 있”하면서 전시의 의의를 밝혔다. 이런 입장은 장서각 기획자의 전시 개요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기획자의 전시 의도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조선시대 국가왕실 문헌(12만 점) 및 민간 사대부 문헌(70개 가문 기탁 · 기증품 5만 점)을 소장한 한국학 아카이브로서 소장한 문헌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계와 일반 시민에게 소개하는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실상을 상세히 조명하여 시권이 지니는 현재적 교훈과 의미를 찾는 데 주목하였다. 2015년 현재 장서각에는 300여 점의 시권이 보관되어 있고, 수많은 과거제 도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었다. 고려 광종의 과거제 도입 이후,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걸렸다. 조선에 이르러 최고의 인재 선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므로 과거는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이번 전시는 과거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데 힘쓰는 한편, 국가 경영과 과거 간의 상관성을 드러내는 데 주목하였다. 과거 또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과거제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였다 는 점에서 이전 시기보다 신분제적 측면이 축소되었다. 또 공부와 교육이 중요해져 조선의 지식문화 수준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관료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유교적 기본 자질은 물론 국가 운영의 현안과 고충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인재 선발 방식이었다. 지금의 대학입시나 국가고시에 식견과 경륜을 묻는 항목이 없는 것은 전통의 단점이다.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조선시대의 과거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전시기획자는 과거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입장에서 과거제도라는 유산의 현재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즉, 현재 시험제도의 단점을 개선할 대안으로 과거제도에 보인 국가 운영의 현안과 고충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늘날 계승해야 할 가치라고 주목하였다. 그런 까닭에 전시는 국가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시권을 소개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를 위해 전시기획자는 먼저 전체 전시를 세 가지의 대주제로 구분해 구성하였다. 즉, 1) 〈국가고시, 과거〉, 2) 〈과거의 생활문화사〉, 3) 〈시권에 담긴 국가경영의 현안과 지혜〉로 주제별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것을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1〉 특별전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얻다』 도록 목차

연번	대주제	소주제	비고
1	국가고시, 과거	1. 과거의 역사 2. 과거의 시행 3. 시권의 형식 4. 과거 답안의 종류	
2	과거의 생활문화사	1. 과거의 준비 2. 과장풍속도 3. 행사와 잔치	
3	시권에 담긴 국가경영의 현안과 지혜	1. 인재의 선발 2. 폐단의 개혁 3. 화합의 도모 4. 풍속의 교화 5. 덕치의 실현	

1장 〈국가고시, 과거〉에서는 과거 제도의 역사와 기원을 제도적 측면에서 구성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즉, 동아시아 과거제의 양상, 고려와 조선의 차이, 과거의 다양한 종류와 시권의 형식 등을 다루었다.

2장 <과거의 생활문화사> 에서는 과거의 생활문화사적 측면을 조명하였다. 과거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열정과 희비, 과거 공부의 교재와 주목받는 독서처, 서자들의 과거 응시, 합격자의 발표와 그에 대한 행사, 동기생 명단인 방목과 합격자들의 동기애 등을 다양한 문서와 그림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꾸몄다.

3장 <시권에 담긴 국가경영의 현안과 지혜> 에서는 시권을 통한 국가경영의 현안과 지혜를 다루었다. 시권 중 현안에 대한 지혜를 잘 보여주는 대책문을 중심으로 국가경영에 대한 지혜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과거에서 나온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 등을 망라하지만, ‘인재의 선발’, ‘폐단의 개혁’, ‘화합의 도모’, ‘풍속의 교화’, ‘덕치의 실현’이라는 범주로 국가와 응시생 간의 대화를 보여 주려 하였다.

이런 구성은 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 과거제의 역사와 시권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다음 과거 운영과 관련된 조선시대인의 다양한 일상을 과거 준비, 과거 가는 길, 과장 풍경, 이후 잔치 등으로 구분하여 당대인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험답안지인 시권에 나오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유형 분류하여 각 내용에 담긴 국가경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재의 선발, 폐단의 개혁, 화합의 도모, 풍속의 교화, 덕치의 실현으로 각 시권을 구분하여, 해당 시권의 핵심 내용을 한글로 풀어서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장 <시권에 담긴 국가경영의 현안과 지혜> 가 전체 전시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 소개된 시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2〉 국가경영의 현안과 지혜를 드러낸 시권 목록

연번	대항목	이름	연도	시험 종류	시험 답안지 내용	비고
1	인재의 선발	정몽주	1360	문과(對策)	문과 무를 병용하는 것이 옳은 정책	
2		정약용	1790	친시(記)	흰꿩·백로·학·공작·앵무 비유, 인재 등용	
3	폐단의 개혁	이 곡	1320	향시(대책)	재물의 절약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4		성삼문	1447	문과(대책)	사병 혁파, 대신 우대 등 제시	
5		박세당	1660	문과(表)	나라의 재정을 담당관리에게 맡길 것	
6		정윤우	1862	? (대책)	환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폐지	

7		김윤식	1862	?(대책)	방전법, 결포, 양전 실시로 폐단 해결	
8	화합의 도모	이 황	1527	향사(疑/義)	사서와 오경에 대한 답변	학술 역량
9		윤선도	1633	문과(대책)	사서오경의 핵심 기술	학술 역량
10		김면주	1776	문과(대책)	경전의 '중'과 '시중'에 대한 기술	
11		김 준	1852	문과(賦)	'중'에 대한 표현	
12		정기상	1874	문과(銘)	군신 관계의 화합을 표현	
13	풍속의 교화	이 곡	1320	?(대책)	풍속 교화 방도 제시	
14		임 영	1671	문과(부)	주역에 대한 이해	
15		조덕순	1690	문과(대책)	인정 실시로 도적 문제 해결	
16	덕치의 실현	조광조	1515	문과(대책)	훌륭한 정치를 위한 급선무 제시	
17		장응일	1629	문과(대책)	임금이 하늘의 도리를 체득하는 방도	
18		이후영	1684	문과(부)	선왕을 본받아 백성에게 미치는 정치	
19		안극효	1741	문과(명)	성군의 선정을 노래해 영조 치적 칭송	
20		박종길	1827	문과(頌)	태평성대 노래	
21		유원성	1882	문과(표)	고종의 덕을 칭송	
22		송준오	1888	문과(부)	태평성대 노래	
23		김상덕	1888	문과(부)	태평성대 노래	

다양한 형태의 시권을 다섯 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여 소개하여 시권을 통한 국가경영 의도를 파악하려 하였다. 이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통한 국가운영을 강조한 조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분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를 몇 가지 주제로 묶다보니 대항목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예컨대, ‘화합의 도모’라는 주제의 시권은 내용상 학술 역량을시험한 것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또 ‘덕치의 실현’을 구현한 것이라는 주제의 19세기 시권은 당시의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요컨대, 이 전시는 2015년 당시로 보면 전시의 기본 방향을 보여주는 친절한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 그리고 그 결과물인 시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이 전시가 갖는 학술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전시의 기획자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꼼꼼하게 소개하였다는데, 이후 연구 활동 및 대중적 관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의 전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방안 제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전시의 결과물인 도록은 시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서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였지만 시권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소개를 통해 시권을 대중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시권 소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전시는 지나치게 과거제도 궁정론을 펼치고 있으며 엘리트 위주의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과거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선시대인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시도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겠다. 예컨대, 문학적 능력이 강조된 과거제 운영으로 국정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현량과가 실시되었던 점을 소개한다거나, 경학 또는 경세학적 학자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였다라고 생각한다. 또 과거제의 운영으로 인해 실용적인 학문이 등한시되는 학문적 협소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전시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시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권을 남긴 사람들은 당대나 그 후대에 있어 학자·문인·정치가로 이름을 날린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그의 관직 경력의 첫걸음에 쓰여진 시권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직 경력과 학문 활동의 경험에서 생긴 경륜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생 초반기의 글을 갖고 한 인물의 사상적·문체적 완성도를 소개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시권의 수준은 시대마다 과거제 운영의 수준과 관계가 되므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성격과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시권을 통해 해당 시기의 고민을 잘 드러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건국 직후 개혁과제가 산적한 시기, 유교 정치의 내면화가 필요한 시기, 전란으로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시기, 봉당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해야 하는 시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시험문제를 내는 사람과 이에 답하는 사람들 간의 고민을 잘 구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조선 건국 직전 정몽주의 대책, 중종대의 조광조의 대책, 현종대 박세당의 표에 담긴 글과

시대적 배경의 연관성을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호한 기준의 유형별 전시 보다 나은 소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런 방향 속에서 기존의 시권 전시에 더하여 새롭게 발전한 전시연출기법을 덧붙여 시권 전시의 대중화를 위한 전시연출기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시험에 대한 시각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아있는 과거에 대한 유물과 함께 문헌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삽화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과거를 보는 사람들의 고충과 정서적 풍경을 그려낼 필요가 있다.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인, 가족, 부모 등의 마음의 심경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거 합격의 기쁨만큼이나 실패한 가족의 이야기에 대한 발굴 및 소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시권 전시의 대중화는 관람객이 시권을 얼마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시권의 내용이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고 있어 직역으로는 그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압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웬만한 고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지 않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번역에 기초하여 영상이나 삽화를 이용하여 직관적인 전시를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박물관 특별전 “사랑”이나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 “쇄미록” 같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영상화하는 전시 연출 기법을 사용하거나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 ”병자호란“ 같이 시권에 나온 논쟁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론하는 전시 연출 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시권에 담긴 내용은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건국 전후 정몽주의 시권 속에서 지식인 정몽주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중종대 유교적 도학 정치를 구현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조광조의 시권에 담긴 세계관을 표현해야 한다. 또 현종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문제를 타개하려는 조선조정의 노력을 박세당의 시권과 연계하여 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시권을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인물의 삶 속에서 시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시권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도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며 시권의 형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즉, 준비 단계(시지의 구입 -> 규격지의 재단·연첩 -> 비봉의 작성 -> 비봉

의 호봉녹명지 -> 시지의 인급), 응시 단계(시지 휴대, 과장 입장 -> 시문의 제술, 서사 -> 수정처 답인 -> 시권 제출), 고열 단계(작축, 축호 부여 -> 자호 부여 -> 할봉 -> 역서 -> 과차 -> 등제 -> 감합), 방방 단계(첨지 부착 -> 입계 -> 방방 -> 시권 환부 -> 방목 작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과장科場의 풍경과 함께 연출한다면 시권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시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시권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나 소설의 신춘문예(당선 소감과 작품, 심사평), 공무원시험(사법·행정·외무·7급·9급)(『수험계』, 『고시』, 『고시계』, 『경향고시』, 『고시와 전망』, 『고등고시』 등 자료), 각종 자격 시험(의사, 언론 등), 학력고사·수능 관련 자료, 고사장 풍경 사진 등을 하나의 전시 공간에 함께 소개한다면 관람객들은 조선시대의 시권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의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맷음말

이상으로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전 <시권-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를 중심으로 과거제도와 그 답안지인 시권을 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발표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맷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시권은 과거제도 운영의 결과물로서 당사자와 가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조선 사회 전반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록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권은 현대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중국 고전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글쓴이의 속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권을 대중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권에 대한 충실한 번역과 그것에 기초해 삽화 또는 영상으로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면, 관람객들도 이전보다 더 시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시권을 한 사람의 문학적, 학술적 능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전시 연출을 함으로써 해당 시대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관람객의 지적 호기심을 끌어내야

한다. 즉, 논쟁적인 주제를 끄집어내어 현재적 의미의 토론의 주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유산도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보여주어야, 과거제와 시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조선시대 문과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한 토론문

박종훈
(조선대)

'조선시대 문과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한 토론문

박종훈

본 토론자는 과거제도나 試卷 등에 대한 정보나 지식 기반이 없어 다소 생소한 분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만큼의 식견은 없다. 또한 발표자는 이 분야에 있어 깊이와 넓이를 갖춘 연구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토론자가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여쭈는 것으로 색채하고자 한다. 천식에서 비롯된 의문이기에, 친절한 가르침을 바랄 뿐이다.

1. 우선 '시권'은 과거답안지이다. 入格한 경우에는 시험지를 다시 돌려 주어 영광을 삼게 했고 입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시권을 한 데 엮은 놓은 문서도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러한 시권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대략이나마 추가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한다.
2. 문과 시권의 종류와 관련된 궁금증이다. '가로형'과 '세로형'의 시권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로형'과 '세로형'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하다.
3. '가로형'과 '세로형'이라고 명명했다. '가로형'과 '세로형'이 존재한다면, 실제 이를 명명한 당시의 용어가 있을 수도 있다. '가로형'과 '세로형'에 대한 당시 용어가 있는지, 또 그렇게 상이한 시지를 쓰게 된 연유에 대해 밝힌 기록은 없는지 궁금하다.
4. 식년시(정기), 증광시와 별시(비정기)에는 '가로형'을, 정시와 알성시(비정기)에는 '세로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실제 시험을 보는 현장의 상황에 맞춰 '가로형'과 '세로형'의 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을 했다.

정시나 알성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격적인 과거로 시행되었다가 보다는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시의 본래 취지에 따라 역서나 사조 등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알성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은 달라지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과거 시험이라는 틀에서 출발하지 않은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했기에 ‘가로형’(식년시, 증광시, 별시)의 엄격함보다는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는 바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에 더욱 엄격했을 것이다.

‘세로형’과 ‘가로형’의 분류는 물론 試場의 성격과도 연관된 것이겠지만, 우선 시험의 성격에 맞춰 나눠봐야 할 듯하다. 또한 각 시험에서의 詩題 및 답안의 작성 형식(賦, 詩, 策, 表 등)도 일정 정도 고려한 상태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5. p.3 ‘식년시와 증광시의 초시의 경우, 외방의 두 개의 시험장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를 부자상피나 시관상피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혹 이외의 경우는 없는 지 궁금하다.

정리되지 못한 논의로 혼란을 초래한 듯도 하다. 우문현답을 바란다.



토론2

"朝鮮 科試 資料의 存在 樣相과
그 分類 試論"에 대한 토론문

권경순

(한국고전번역원)

「朝鮮 科試 資料의 存在 樣相과 그 分類 試論」에 대한 토론문

권경순(한국고전번역원)

김광년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과시 자료의 존재 양상을 유형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과시 연구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과시 연구를 다룸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과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상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토론자의 책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지금의 원고는 과시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느낌을 줍니다. 머리말 부분에서 ‘과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논문 전체의 내용을 과문 중심으로 개편하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과시가 아닌 과문 자료의 존재 양상을 분석하고, 과문 자료의 분류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2.

2장에서 제시하신 과시 자료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분류 기준에 대한 여러 의문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이를테면 공적 문헌과 역사 기록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역사 기록의 하위 항목들을 보면 이를 역시 공적 문헌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과문집이나 과규집과는 성격이 다른 과제집을 과문 및 과규집 항목에 분류한 것도 의문입니다. 분류 기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3장에서 경주최씨 문중의 과문집을 목록으로 소개하셨는데, 자료를 직접 열람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제시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부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 아래에 서술한 내

용이 과연 해당 문중의 과시 학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한편, 제시하신 도표의 서지사항 부분은 모든 자료들이 필사본 1책으로 동일하고, 판종과 권책수, 크기만 제시하고 있어서 이 논문의 내용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각 자료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해당 문중의 과문집들이 어떤 특징적 면모를 보이는가에 대해 분석해 주시면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4.

논문에서 과거 시험을 지칭하는 용어로 ‘科試’ 와 ‘科舉’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과시’ 를 논문의 제목에 사용하고,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이 용어를 사용하신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지요? 발표자께서 ‘과시’ 와 ‘과거’ 의 의미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논문에서 제시한 과시 자료들 외에 누락된 자료들이 일부 있어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의 필기류, 특히 야담 자료들 중에 과거를 소재로 한 科舉談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역시 조선시대 과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방목류 자료에는 합격자 명단과 더불어 각 시험 단계별 시험 문제와 시관 명단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단회 방목에 한함). 이들 자료 역시 과시 자료의 존재 양상의 하나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아래는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 제시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각주 14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소장 과문집 자료의 수량을 제시해 주셨는데, 해당 수량은 과문집뿐만 아니라 과규집 등 다른 유형의 과시 자료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문집에 과문이 실린 사례로 김석주의 『식암유고』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

다. 작품의 수량이 풍부하고 실제 답안과 습작이 함께 실려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은 수긍할 만하지만, 이보다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체’나 ‘과문’ 등을 문집에 편차한 문인을 사례로 들어주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토론 3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시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문

박 은 빙
(전남대)

'조선시대 과거 시험지 <시권>의 대중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토론문

박은빈(전남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지 ‘시권’은 조선의 과거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핵심 자료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발표에서는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권’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전시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를 중심으로 시권의 대중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특별전 도록의 체제와 내용을 먼저 살핀 뒤 이를 비판하며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전시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발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에 대한 전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시권을 다섯 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과거 시체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묶으려고 보니 대항목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예컨대, ‘화합의 도모’라는 주제의 시권은 내용상 학술 역량을 시험한 것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또 ‘덕치의 실현’을 구현한 것이라는 주제의 19세기 시권은 당시의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해당 항목의 대주제가 전시되고 있는 시권의 주제를 완벽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대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만 전시된 시권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기존의 시권 전시에 더하여 새롭게 발전한 전시연출기법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시각화를 통해 과거의 시험을 현재의 장소에 재현시키는 방식은 전시를 접하는 관람자들에게 감성적인 공감을 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과거 합격의 기쁨이나 실패한 이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시권 그 자체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시권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 자료의 전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자료보다는 컨텐츠 위주의 전시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권’이라는 주제 그 자체에 대한 전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시권의 내용을 살펴보되, 개별 인물의 삶 속에서 시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인물의 시권을 전시할 때에, 해당 시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작자의 생애에 걸친 사상 모두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앞서 지적한 대로 시권이란 그 인물의 전 생애에 걸친 사상을 드러낸 글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그 인물의 생각이 반영된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인물의 생애에 걸친 사상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너무 인물 자체에 집중한 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전시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발표 말미에 시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오늘 날 시권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시나 소설의 신춘문예(당선 소감과 작품, 심사평), 공무원 시험(사법·행정·외무·7급·9급)(『수험계』, 『고시』, 『고시계』, 『경향고시』, 『고시와 전망』, 『고등고시』 등 자료), 각종 자격 시험(의사, 언론 등), 학력고사·수능 관련 자료, 고사장 풍경 사진 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시들은 다소 큰 범주 안에서만 틀을 같이 할 뿐,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과 자격 시험, 학력 고사와 수능 등은 시험이라는 기능적인 측면만 할 뿐 시험의 방식이 전혀 다르며, 신춘문예의 경우 얼핏 그 형태가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범주의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발표에서 제시되었던 장서각 기획자의 전시 개요에서도 언급된 바 있

습니다. 기획자는 '지금의 대학입시나 국가고시에 식견과 경륜을 묻는 항목이 없는 것은 전통의 단절이다.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조선시대의 과거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의 시험과 조선의 과거 시험이 전혀 다른 형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굳이 현대의 시험과 일대일로 치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과거제도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현대 사회에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을 찾는다면 대학입시나 교사 임용 단계에서 치뤄지는 논술 시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을 과거제도와 함께 엮어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과거제도와 현대 시험의 큰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과거 시험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시권 자료의 탐색과 활용화 방안

발간일: 2024년 11월 21일

발간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소촌동)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